
비판적 읽기와 쓰기

Critical Reading and Writing

안병학

Ahn Byunghak

홍익대학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Hongik University

투고일 2022년 12월 31일 / 심사일 2023년 1월 15-31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31일
Received Date 31 Dec, 2022 / Reviewed Date 15-31 Jan, 2023 / Accepted Date 31 Jan, 2023
p-ISSN. 2765-2572 / e-ISSN. 2765-7825

PP.160-205

쓰기를 위한 이미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읽기는 쓰기의 한 과정이다. 텍스트를 분석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과정이 읽기를 통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읽기에는 텍스트에 담긴 의미망을 가로지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선형적으로 읽어내는 것은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읽어내기에는 부족하다. 텍스트 사이에 얼기설기 담긴 의미의 틈을 좇는 읽기를 지향해야 읽는 이의 질문이 개입하는 경험을 만들 수 있다.

‘창의적 읽기’란 읽기를 통해 발견한 문제를 쓰는 행위로 연결하기 위해 일련의 이미지를 좇는 수행(隨行)적 행위이다.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고, 쓴다는 것은 텍스트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행위가 아니라, 텍스트에 담긴 맥락적 의미와 그 흔적을 좇아 의미의 구조를 자신의 관점으로 정의하고 개념화하는 일이다. 개념은 추상화된 형태의 지식이다. 다시 말해, 모든 개념은 극도로 고도화될 때 추상으로 향한다. 이런 이유로 지식은 이미지 형태의 추상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읽어낸 텍스트 속에 존재하는 개념들의 복잡한 연결로부터, 질문 형태의 쓰기를 이미지화하는 일은 그래서 비판적이고, 그래서 창의적이다.

쓰기는 이렇게 말하기의 한 방식이다. 다수가 사회적 약속으로 공유하는 언어 기호를 도구 삼아 말하는 행위이다. 물론, 이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때로는 직접 혹은 간접 인용을 주로 사용하는 기술(技術)적 글쓰기일 수 있고, 때로는 변형적 인용 혹은 반증 자료에 의한 경험(經驗)적 글쓰기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쓰기는 예술 혹은 디자인의 조형 언어를 활용한 말하기 방식과 닮았다. 약속된 기호 체계인 문자 혹은 조형 언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닮았고, 또 그것이 자신만의 말하기 방법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닮았다.

그렇다면, 글을 쓰는 작가 혹은 디자이너에게 창의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창의적이라고 평가할까? 글쓰기와 디자인은 모두 의미를

In the aspect of creating images for writing, reading is a process of writing. Analyzing the text, evaluating it from one's own perspective, identifying and defining problems are processes that occur through reading. Therefore, reading requires an attitude that traverses the semantic web embedded in the text. While reading the linearly conveyed meaning in the text can help grasp the main topic of the writing, it has limitations in creatively interpreting the text. Reading should focus on the gaps of meaning interwoven between texts, which allows the reader's questions to intervene and create an experiential process.

Creative reading is a performative reading that follows a series of images in pursuit of the problems discovered through reading, in order to write. For this reason, critically reading and writing a text does not mean discerning the truth or falsehood of the text. Instead, it is the act of defining and conceptualizing the contextual meanings embedded in the text, as well as their traces, from one's own perspective. Concepts represent abstracted forms of knowledge, and when concepts become highly abstract, they tend towards abstraction. Hence, knowledge can be seen as abstracted concepts in the form of images. From the complex connections of concepts found in the read text, transforming questions into images through writing is both critical and creative.

Writing is a way of speaking, using the language symbols shared by the majority as a social agreement. Of course, there can be various ways to utilize these tools. Sometimes it can be a technical writing that primarily employs direct or indirect quotations, and sometimes it can be an experiential writing based on transformed quotations or counterexamples. In this aspect, writing is akin to the language of art or design. It is similar in that it utilizes the agreed-upon symbolic

형식에 담아내는 일이다. 작가가 혹은 디자이너가 만들어 내는 형식에는 언제나 이들이 의도한 의미의 틈이 존재한다. 그 틈은 때로는 일정한 패턴을 이루기도, 때로는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불규칙한 형식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형식이 어떠한 독자 혹은 사용자는 그 계획된 틈을 통해 작가 혹은 디자이너가 의도한 의미의 흔적에 참여한다. 독자 혹은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으로 만나는 의미, 이것이 그들이 텍스트 혹은 디자인 결과물로부터 읽어내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말하기 방식으로서 디자이너의 창의적 글쓰기는 어때야 할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직한 것이 몸의 지향성에 관한 인식을 토대로 낭시(Jean-Luc Nancy)가 제안한 글쓰기가 아닐까? 그가 제안하는 것은 글쓰기 자체가 아니라 글쓰기를 통한 접촉의 흔적이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으로 아는, 실재하지만 단지 물질적이지 않을 뿐인 무엇이다. 접촉을 자극하는 감각을 활용한 글쓰기다. 일종의 추진, 충동, 누르기, 흔들기 따위들이 만들어내는 글쓰기다.

systems of writing or visual language and operates as its own way of speaking.

So, what does it mean for a writer or designer to be creative? How do we evaluate something as creative? Both writing and design involve giving form to meaning. The forms created by writers or designers always contain gaps of intended meaning. These gaps can sometimes take on certain patterns or be highly unpredictable and irregular.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se forms, readers or users participate in the traces of intended meaning through these planned gaps. The meanings that readers or users encounter through their own experiences are what they extract from the text or design outcome. In that case, what should the designer's creative writing be like as a way of speaking? It might be worth considering Jean-Luc Nancy's proposal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body's orientation. What he suggests is not writing itself, but the traces of contact through writing. In other words, it is something that we all already know through experience, which is real but merely not material. It is a kind of writing, created by impulses, pushes, and shakes, that utilizes the sensations that stimulate contact.

“쓰는 것이 있게 하라. 몸에 관해서가 아니라 몸 자체를, 육체성이 아니라 실제 몸을, 몸의 기호나 이미지 또는 암호가 아니라 여전히 몸을.” “나는 접촉하지 않는 글쓰기가 과연 가능한지 알지 못한다. 보고서나 발제문의 글이 아니고서야 글쓰기는 본질상 몸과 접촉한다. 글쓰기와 몸의 접촉은 글쓰기의 의미를 몸의 살갓과 신경으로부터 분리하는 절대 경계를 따라가며 일어난다.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는 바로 거기가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다. 도려내고, 무늬를 넣고, 문신을 새기고, 상처를 낸 기록된 몸들은 제 위에 새겨진 부호들의 영광스러운 흔적이기에 소중하고, 그렇기에 그 부호들처럼 간직되고 유지될 수 있는 몸들이다.” “몸을 향해 쓰라. 작가가 하는 일이 그것 말고 다른 것일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것은 존재를 향해, 또는 스스로를 건네는 존재를 향해 보내질 것이다. 사유가 그것 말고 대체 무엇일 수 있는가?”¹⁾

“Let there be writing, not about the body, but the body itself. Not bodihood, but the actual body. Not signs, images or ciphers of the body, but still the body.” “I know of no writing that doesn't touch. Because then it wouldn't be writing, just reporting or summarizing. Writing in its essence touches upon the body. Writing touches upon bodies along the absolute limit separating the sense of the one from the skin and nerves of the other. Nothing gets through, which is why it touches. Written bodies—incised, engraved, tattooed, scarred—are precious bodies, preserved and protected like the codes for which they act as glorious engrams.” “Writing to bodies (what else do writers do?): something's being sent to being, or better yet, being's sending itself. (What else does thinking think?)”

1) 장-뤽 낭시, 『코르푸스』, 김예령, (문학과 지성사, 2012), p.9, pp.14-16, pp.156-157, p22

1) Jean-Luc Nancy, *Corpus*, (trans.) Kim Yeryeong, (Seoul: Moonji Publishing, 2012), p.9, pp.14-16, pp.156-157, p22

Part 1.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Does Writing Have a Future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불러내고, 흩트러뜨리고, 조립하기
Writing in the Digital Age:
Summoning, Scattering and Assembling

이현송
Lee Hyunsong

현대백화점 디자이너 Designer, Hyundai Department Store

우리가 쓰는 글쓰기 도구가 우리 사고에 함께 가담한다.
— 프리드리히 니체¹⁾

요즘 일상의 거의 모든 장면에서 핸드폰 화면을 보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한다. 그들은(혹은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타이핑한다. 메신저,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 인터넷 쇼핑 주문 과정에서 주소 입력 등 일일이 인지할 틈도 없이 손가락은 항상 무언가를 찾고 쓰고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기술의 발전은 역사의 흐름 위에서는 거대한 혁명이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기술의 대부분을 아이폰, 블루투스 헤드셋, 디지털 워치 등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얼굴, 홍채, 지문 인식 등으로 직접 손가락으로 입력하던 암호 인증 과정을 대체하는 기술도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활에 강제로 일상화되었다. 한편 최근 다시 돌아온 세기말 시대의 유행인 피쳐폰 스타일의 핸드폰, LP의 유행 등을 지금 나의 일상—스마트폰의 기능, 애플뮤직이나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 행위—과

비교해 보면 듣기의 방식, 쓰기의 도구, 생각의 과정이 급격히 변했다는 것을 새삼 알 수 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자리에서 바로 찾을 수 있고, 듣고 싶거나 보고 싶은 것을 찾아보거나 문득 떠오른 생각을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도구만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디지털적으로 글을 쓰는 법'은 과연 어떤 글쓰기인가? 그것은 과연 기존의 글쓰기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와 같은 디지털적인 기록방법이 여전히 글쓰기라는 것으로 불릴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이 경우에 전통적 코드로부터 새로운 코드로의 코드변환이 문제된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디지털적으로 글을 쓰는 법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²⁾

'글쓰기'라는 행위를 일상 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 기술의 발달과 연결해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찰나의 단상을 기록하는 도구인 메모의 형태와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 한 예로, 아이폰(iPhone)의

메모(Notes)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그림 1]은 메모라는 행위가 기존 아날로그 시대에 작은 종이에 손글씨나 그림으로 생각이나 정보를 기록하던 형태를 넘어서 플루서(Vilém Flusser)가 이야기했던 디지털적 코드 변화로 달라진 새로운 글쓰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미래의 ‘독자’들은 저장된 정보들을 호출하기 위해서 화면 앞에 앉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어떤 미리 쓰여진 행들을 따라 배열된 정보블럭들을 수동적으로 골라내는 것(주워모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용가능한 정보단위들 사이에서의 횡적 결합이라는 능동적인 짜깁기이다.³⁾

역사의식—드라마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흐름 속으로 깊이 빠져 있는 이러한 의식—은 미래의 ‘독자’에게서는 희미해진다. 그는 자신의 고유한 시간흐름들을 짜깁기하고 있다. 그는 더 이상 행을 따라 가면서 읽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망(Netz)를 짜고 있다.⁴⁾

플루서가 주장한 것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기존의 정보 체계에서 ‘독자’라 불린 수용자들은 이제 ‘독자’이자 자신이 수집하고 재배열하는 정보의 ‘저자’의 역할까지 맡는다. 책에서 ‘뉴턴’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디지털 정보 세계에서 함께 공존하는 예를 든 것처럼, 역사적이고 선형적인 사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들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교차하며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간다.

디지털 시대의 메모는 단순히 떠올린 생각, 중요한 일정, 누군가의 연락처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 장치들을 떠올린 즉시 구현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집을 레노베이션 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메모를 쓴다고 생각해 보자. 종이 수첩에 똑같은 주제를 적는다면 해야 할 목록을 정리하고, 상세히 그 내용을 글쭉로 쓰는 데



[그림 1] 아이폰 Notes 앱의 다양한 활용

- 1) 빌렘 플루서,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윤종석, (xbooks, 2015), p.276
- 2) 플루서, 같은 책, p.243
- 3) 플루서, 같은 책, p.245
- 4) 플루서, 같은 책, p.246

그쳤을 테다. 하지만 디지털 메모는 목록 작성과 동시에 첨부 기능을 이용한 장소 확인 및 이미지 확인, 포털 검색을 통한 트렌드 확인, 그리고 클라우드 기능으로 관련 사람들에게 바로 이메일/메신저로 바로 공유까지 가능하다.⁵⁾

이런 과정이 전제된 글쓰기는 당연히 종이 위 펜으로 생각을 전개해야 하던 때와는 그 생각의 전개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디지털로 코드변환된 메모는 어떤 키워드를 떠올리는 동시에 그것에 대해 검색하고, 기존 정보를 확인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 사고의 전환을 더욱 빠르게 촉진시키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의 범위를 인터넷(internet) 접속망의 너비만큼 넓게 펼쳐놓으며 그렇게 새로 짜여진 생각, 개인의 망(Netz)의 공유를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동기화시킨다.

마치 사람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나 상상을 할 때 시공간이나 물리 법칙을 초월한 장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정을 얼마든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나 보충 자료, 관련 사례들을 덧입히는 글쓰기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 생활 방식까지 바꾸어놓았다. 팬데믹 시대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디지털 동기화'라는 코드 변환이라는 기능이 주요했다. 슬랙(Slack), 노션(Notion),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같은 실시간 업무 공유 도구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글을 쓰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발전시키며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실시간-단체-글쓰기 행위를 가능케 한다. 기존 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플랫폼이 송신-수신이라는 순차적인 과정이었다면,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플랫폼은 이를 동시에 작동시킨다.

한편 클라우드 플랫폼 이전에 사고방식의 전환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던 최근의 쓰기-읽기 도구로 전자책이 있다. 전자책은 종이책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지만 종이책의 고정된 인터페이스와 차별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읽기'라는 과정을 세분화—화자 크기와 서체 변경, 화면 밝기 조절 및

내장 TT기능으로 읽기 기능 제공 등—했다⁶⁾. 그리고 디지털 파일을 단말기에 넣어 보고/읽는 '전자책'의 작동 방식은 '출판 글쓰기'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누구든지 저자가 되어 디지털 PDF를 만들어 디지털 북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전자책의 관점에서는 '출판 글쓰기'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 종이책이 거의 대부분 전문 작가가 쓰여진 글이 책을 유통, 판매하는 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어 서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던 경험과는 다른 전자책의 쌍방향 인터페이스가 촉발한 변화는 자가출판 시장을 크게 확장시켰다. '출판을 위한 글쓰기'는 전자책의 등장으로 인해 그 심리적, 전문적 장벽이 낮아지고 기존에 책으로 정의되지 않았던 범위의 글쓰기까지 '책'으로 명명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기술은 우리가 글을 쓰고 생각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하지만 알파벳 코드를 파괴하고, 디지털 코드 너머를 기대한 플루서의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알파벳 코드는 견재한 것처럼 보인다. 디지털 코드와의 공생 관계를 꽤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인공지능(AI)기술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알파벳 코드가 더욱 디지털 코드 세계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보조 장치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듯하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역시 알파벳 코드를 기반으로 한 명령어로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래밍 플랫폼이다. 비록 플루서는 문자 너머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될 새로운 세계를 갈망했지만, 다른 어떤 발명보다 인간의 의식을 가장 많이 바꾼 문자라는 발명품을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바라보기보다 문자와 결합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의식을 바꿔나갈지를 상상해본다면 어떨까.

1987년, 빌렘 플루서는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를 책과 플로피디스크의 형태로 동시에 출판한다. 디지털 코드 시대 개막의 시대에 문자 언어 사고 방식의 강점과 한계를 당대 기술을 활용해 나타내려고 한 시도였다. 플로피 디스크 이후에 나타난 기록장치들은

더 많은 기억을 담고 더 멀리 전달하고, 퍼뜨릴 수 있게 되었다. CD-ROM에 대백과사전을 기록하고, USB 하나에 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는 시대를 지나 지금은 '클라우드'라 불리는 용량의 제한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정보를 채울 수 있는 가상의 공간에 기록을 담는다. 기록장치라는 그릇의 형태와 크기가 변화하는 동안, 그 그릇에 담긴 재료인 정보 역시 시대에 따라 형상코드(이미지), 알파벳코드, 그리고 디지털코드 등으로 표현된다. 디지털 코드 시대의 또 다른 글쓰기의 모습, 혹은 디지털 코드 이후 새로운 글쓰기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일까. 예를 들면 듣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그 모두를 아우르는 경험이 가능하다면?

2023년, 대도시의 일상 생활을 생각해본다면 새로운 코드의 출현은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유튜브,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 영상을 경험하는 빈도가 늘어난 만큼 듣는 동시에 읽고, 보는 동시에 듣는 것이 당연해졌다. 영상 속 자막은 소리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소리와 이미지를 문자(자막)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물리적인 인체의 기능과 상관없이 소리의 취사 선택이 가능한 '노이즈 캔슬링'이라 불리는 '능동 소음 제어(Active Noise Control) 기능은 알파벳 코드(귀, 음성문자)를 디지털 코드(기계화, 프로그래밍)를 사용해 선택적으로 컸다 컸다 할 수 있게 만들었다. 1970년대 항공기 제트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승무원과 승객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노이즈 캔슬링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로 대중화되었다. 이 기능을 사용해 인간은 주어진 신체 기능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었던 외부 자극— 주변의 '소음'—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⁷⁾. 이러한 인위적인 소리 조절로 조성되는 그 순간의 개별적 경험을 선형적인 시간 흐름이 아닌, 개인의 고유한 시간 흐름을 짜깁기해 만든 고유의 망(Netz)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새로운 사고 방식, 새로운 코드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읽는 것을 모두 동시에 조작할 수 있게 된 시대의 글쓰기는 우리의 감각 영역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까?

- 5) Use Notes on your iPhone, iPad, and iPod touch, <https://support.apple.com/en-us/HT205773>, (2022.1.10)
- 6) 에머런스 보서크, 『책이었고 책이며 책이 될 무언가에 관한, 책』, 노승영, (마티, 2019), p.257
- 7) 데이먼 크루코프스키, 『다른 방식으로 듣기』, 정은주, (마티, 2023), p.43

Part 1.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Does Writing Have a Future

디자이너의 글, 글쓰기

Designer's Text and Writing

이우용
Lee Wooyong

프리랜스 디자이너 Freelance Designer

```
<!DOCTYPE html>
<html>
<html lang="ko">
<head>
  <title>designerstextandwriting</title>
</head>
<body>
  <h1>디자이너의 글, 글쓰기 </h1>
  <h2>이우용 </h2>

  <p>이 글은 디자이너의 글이다. 정확히는
  웹디자이너의 문법,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이 적용된 글이며 일종의 코드이다.
  그렇기에 이 글은 일반적인 글과는 거리가 있다. <a
  h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
  bedcfb44c95b40f1a40f01fca76c711a">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글’은 3가지 정의를
  가진다. </a><br>
  ① 생각이나 일 따위의 내용을 글자로 나타낸 기록
```

```
<br>
  ② 학문이나 학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br>
  ③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 <br>
  대다수의 사람이 생각하는 글은 ①과 ③의 정의가
  결합된 ‘어떤 생각이나 일을 일정한 체계로 배열한
  문자들’일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이 글을 본다면
  체계에 문제가 있다. 만약 HTML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본다면 글의 구조와 체계를 파악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약간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특별히 어려운 문자
  혹은 단어를 사용한 글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꺾쇠
  내 알파벳은 이 글을 단순한 글이 아닌 마치 암호
  혹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무엇인가로 느끼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꺾쇠 내 알파벳은 암호가 아닌
  웹과 화면 환경에서 여러 전산장치와 소통을 위한
  웹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사용하는 문법, HTML이다.
  이 글을 웹이 여러 전산장치와 소통을 마친 결과물,
  즉 평소 우리가 화면을 통해 보는 방식으로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된다. <br>
  <a href="designerstextandwriting.html">
```

<https://oooo0110.neocities.org/designer/designerstextandwriting>
 링크를 통해 보는 글은 내용이 좋은 나쁜 글이라는 것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웹상에서 일반적인 형식의 글로 보이기 위해 HTML 문법을 적용한 이 글은 글일까 아니면 소수의 전문가만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코드일까? </p>

<p> 플루서(Vilém Flusser)는 글쓰기를 자모음들과 다른 문자기호들을 나란히 배열하는 것이라 했다. 또한, 문자기호를 '코드'라 칭하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코드는 미래에 더 효과적인 '새로운 코드'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으니 타성에 젖어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잘못된 길에 들어가지 말라 했다. ^{빌렘 플루서, (2015),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xbooks, p.15} HTML은 웹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코드'이자 일종의 문법이다. 대다수의 사람이 사용하기 가장 쉬운 문자 코드인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문법이지만, 웹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 문법을 따른다. 새로운 문자 코드는 아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문법 코드인 HTML은 쉽고 효과적이며 웹 환경 내 이미 기존의 코드를 대체한 '새로운 코드'이다. 비록 이 새로운 코드가 웹 디자이너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다 하여도 HTML이라는 언어 체계 안에 있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며, 전달하고자하는 생각이 담겨 있다. 화면 작성을 거쳐 웹에 보이는 결과물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이 된다. 코드를 이해할 수 없다 하여 글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글이다. </p>

<p> 과거 HTML은 개발자가 사용하는 특수 문법이었다. 그러나 이제 HTML 혹은

코딩은 많은 학교 교양 수업이며, 나아가 2025년부터 초중고에서 의무 교육이 된다. 코딩 교육, 즉 HTML이란 새로운 문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디지털 역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글쓰기를 가능케 하는 것이며 이는 수많은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될 것이다. 민구홍은 코딩을 "글쓰기 실력, 컴퓨터 언어를 도구 삼아 다루는 일, 즉 코딩은 글쓰기와 다르지 않다. 아니 코딩은 실제로 글쓰기다." ^{민구홍, (2019), 『한 시간 총서 5-새로운 질서』, 미디어버스, p.63}, "웹사이트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집단적 욕망을 실현하는 개별적 실천이다. 예술가일수록 자신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하는 까닭이다." ^{민구홍, 『한 시간 총서 5-새로운 질서』, 미디어버스, 2019, p.55} 라고 했다. 코딩은 이미 웹에서 기존의 글쓰기를 대체한 새로운 글쓰기이며 동시에 표현의 영역이다. 보이고 싶은 글을 HTML 문법에 맞추어 쓰는 글쓰기이고 동시에 욕망의 실현이다. 문제는 글쓰기를 이 문법에 맞추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결과물에 차이가 있다. 동일한 내용을 같은 문자 코드(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로 HTML 문법에 맞추어 쓰지만, 누가 어떻게 글을 쓰냐에 따라 다른 결과물로 보일 수도 있고, 동일한 결과물이 보여도 글의 양이나 형식이 확연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차이는 글쓴이(코더)의 경험, 실력, 혹은 의도 차이에서 올 수 있다. 자신만의 글쓰기 방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HTML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이 있다. 마치 영어의 기본 규칙이 주어 + 동사 (+ 목적어)이듯, HTML의 기본 규칙은 목록화이다. </p>


```

<!DOCTYPE html>
<html lang="ko">
  <head>
    <title></title>
  </head>
  <body>
    <h1></h1>
    <p></p>
    <h2></h2>
    <p></p>
  </body>
</html>

```

[그림 1]

	차례
울긴이의 말	5
0. 서문	15
1. 메타문자	18
2. 각명문자	27
3. 표면문자	37
4. 자모음	46
5. 텍스트	67
6. 도서인쇄	83
7. 규정	95
8. 구어	107
9. 문예창작	118
10. 읽기방식	129
11. 암호풀기	141
12. 책	153
13. 편지	166
14. 신문	179
15. 종이거래	191
16. 글쓰는 탁자	201
17. 스크립트	213
18. 디지털	225
19. 코드변환	237
20. 서명	249
21. 추신	257
울긴이 해설:	
빌렘 플루서와 텔레마틱 사회의 유토피아	261

[그림 2]

<p> 그림 1 </p>

<p> 그림 2 </p>

<p> [그림 1]은 HTML 문법의 가장 기본 구조이다. 이 문법에 따라 글을 쓰기 위해서는 ‘html lang’을 통해 사용 문자 코드를 설정한 뒤, ‘head’와 ‘body’를 나누고 ‘body’ 내 ‘h1’, ‘h2’와 같은 위계를 정하며 모든 요소를 목록화해야 한다. 마치 책 처음에 나오는 차례, [그림 2]^{빌렘 플루서,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윤종석, (xbooks, 2015), p.11}와 비슷한 목록화이다. ‘head’의 영역은 ‘차례’이고, ‘h1’은 ‘옮긴이의 말’, ‘p’는 ‘0. 서문’부터 ‘21. 추신’, ‘h2’는 ‘옮긴이 해설’이다. 차례에서 이 목록의 순서가 바뀌는 순간 책을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힘을 잃듯이, HTML에서도 목록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코딩 내 오류가 발생하며, 화면의 결과물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 마치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한 글을 쓸 때, 글의 구조를 이상하게 잡거나 이상한 수식어가 붙으면 독자가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p>

<p> HTML의 구조를 책에 비유하자면 ‘head’의 영역은 책의 표지이며 ‘title’은 책의 제목, ‘body’는 내지이다. ‘h1’은 대제목, ‘h2’는 중제목이고 ‘p’는 본문이다. 책 디자인에서 목록화는 너무 당연하기에 쉽게 지나치지만 이 목록화가 제대로 되어야 글과 디자인이 하나로 맞아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는 보통 책을 디자인할 때,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가장 먼저 저자가 쓴 원고를 읽고 거기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캡션, 발체문 등 필요한 요소를 목록화하며 디자인 구조를 시각화한다. 목록화한 요소에 시각적 위계를 부여하여 읽을 때 불편함이 없고 각 요소가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글자 크기, 글자 사이, 글줄 사이 등 세세한 값을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각 글의 구조별로 글의 양을 맞추거나 고아글자^{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2012), 『타이포그래피 사전』, 안그라픽스, p.86}를 없애기 위해 윤문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편집디자인에서 다루는 레이아웃, 단, 판형 등 요소 역시 이 목록화와 위계 설정에 따라 다루어야 글과 디자인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 결국, 작가가 배열한 문자들의 덩어리, 즉 디자이너가 만든 시각 문법에 맞추어 글을 목록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작가와 디자이너가 계속하여 글과 시각 문법을 서로 다듬으며 디자인과 글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책 혹은 웹을 디자인하기 위해 글에 어울리는 시각 문법을 만드는 것 또한 디자이너의 글쓰기이다. </p>

<p> 이처럼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인터페이스에서는 그것이 책이든, 웹이든, 모바일 매체가든 디자이너의 글쓰기가 필요하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보여줄지, 어느 정도의 글을 노출시킬지, 어떤 기능을 어떤 기호에 매칭할지에 대한 효과적인 문법을 만드는 것 또한 디자이너의 글쓰기다. 이런 시각 문법을 통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트위터이다. 현재는 여러 SNS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호이지만, 초창기 트위터는 다른 SNS와 달리 해시태그(hash tag, #)라는 차별점이 있었다. 대부분의 SNS에 업로드된 게시물은 각기 흩어져 있었고 이를 모을 수단이 없었다. 2007년 트위터에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묶기 위해 #(hash)기호를 사용해 정보를 묶는 새로운 코드의 사용을 시작했다. 본래 #기호는 번호 기호(number sign), 파운드 기호(pound sign)로 사용되었지만, 트위터에서 설정한 새로운 문법이 적용되며 개인이 올린 게시물은 해시태그를 통해 분류 및

목록화되고, 이 해시태그는 수많은 검색 가능한 연결을 만들어 냈다. 결국 해시태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로 퍼졌고, SNS를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코드가 되었다. </p>

<p>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코드가 있다. 해쉬태그와 같이 일상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이다. AI가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을 대체하고 있다. 플루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이 도태된 코드가 되며 AI가 새로운 효과적 코드가 되는 것이다. 플루서는 글쓰기 행위, 문자기호들을 행들로 질서화하는 기계화·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빌렘 플루서,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윤종석, (xbooks, 2015), p.20} 가능하다. chat GPT와 같은 AI가 문자의 질서화를 자동으로 처리해 글을 쓴다. 글을 쓰는 것은 물론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AI가 만든 한 사진은 국제사진전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심사위원은 이 사진이 AI가 만든 이미지인지 구분하지 못했고, 우승까지 했다. 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AI가 인간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글과 이미지를 합쳐 원하는 책,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아직은 배열이 단조롭다. 반면, 배열 방법은 무한히 많다. 판형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하여 독자가 읽기 편하게 할지, 어떤 글꼴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어조를 담을지, 몇 단으로 나누는 게 글의 구조가 명확하게 보일지, 대제목·중제목·소제목·본문·캡션 등에 어느 정도로 시각적 차이를 주어 위계를 부여할지, 더 나아가 이런 디자인을 어떤 종이에 담아야 독자가 더 쉽게 보며 글에 어울리는 촉각적 경험을 할지 등 수많은 고려할 일이 있다. 또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 글의 성격, 글의 분량 등 여러 내용을 고려한 효과적인 새로운 문법으로 다듬는 것은 AI가 쉽게 할 수 없는 과정이다. 마치 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 음식 맛이 다른 것과 같다. 디자이너가 최상의 결과물을 위해 자신만의 문법을 만들고,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 매번 다른 글쓰기를 하는 것은 요리사가 동일한 재료로 최상의 맛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자신만의 조합, 조리법을 익히는 것과 동일하다. 이것은 AI로부터 디자이너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디자이너가 자신만의 시각 언어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자신만의 문법 체계와 말하기 방식으로 만든 디자이너의 수많은 창의적 디자인은 AI가 따라 할 수 없는 나만의 글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특이성 창출 과정조차 충분히 데이터화되고 나면 그 후에도 궁극적으로 남을 수 있는 나만의 글쓰기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p>

<h3> 참고문헌 </h3>

<p> 민구홍, (2019), 『한 시간 총서 5-새로운
질서』, 미디어버스 </p>

<p> 빌렘 플루서,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윤종석, (xbooks, 2015) </p>

<p>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2012),
『타이포그래피 사전』, 안그래픽스 </p>

<p> JTBC, [https://news.jtbc.co.kr/article/
article.aspx?news_id=NB12123066](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3066),
(2023.4.25) </p>

<p> NAVER, [https://ko.dict.
naver.com/#/entry/koko/
bedcfb44c95b40f1a40f01fca76c711a](https://ko.dict.naver.com/#/entry/koko/bedcfb44c95b40f1a40f01fca76c711a),
(2023.4.25) </p>

<p> YTN, [https://www.ytn.co.kr/_
ln/0103_202211091701143608](https://www.ytn.co.kr/_ln/0103_202211091701143608), (2023.4.25)
</p>

</body>

</html>

Part 2.

디자이너의 글쓰기

Designers' Writing

B는 C를 바라보고, C는 A를 생각하고,
D는 이에 관한 검고 푸른 글을 쓴다
B Staring at C, C Thinks of A,
D Writes a Story of them in a Mood of Black and Blue

홍지윤
Hong Jiyoan

슬레이드 미술대학,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석사과정
MFA, Slade School of Fine Art, University College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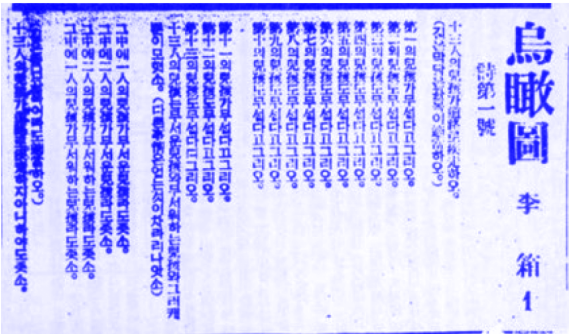
“우리 같이 죽을까? 우리 어디 먼데 갈까?”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하는 A의 말에 C는 먼 곳으로의 여행이 마음에 들었고 또 죽는 것도 싫지 않았기 때문에 A를 따라나섰다. C는 종종 A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했다. A의 훔날리는 웃음, 낮은 목소리, 초점 없는 눈동자, 병약스럽고 충동적이며 교만하고 신비로운 A의 모든 것들, C는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곤 했다. A는 자주 자신이 꾸는 꿈을 말하기 좋아했다.

1. 강릉의 해변가에서 바다를 연결하여 거대한 파도를 설치 하는 꿈.
2. 다리 한 짝을 걸쳐 울리고 굴 까먹는 여자를 본 꿈, 그 여자는 이내 다시 굴 까던 그릇에 손톱을 깎더니 자신을 힐끗 쳐다보았다는 꿈.
3. 모든 건 선으로 이어져 있고, 모든 공간의 최초 시작은 선, 선... 세상의 모든 것이 선이었다는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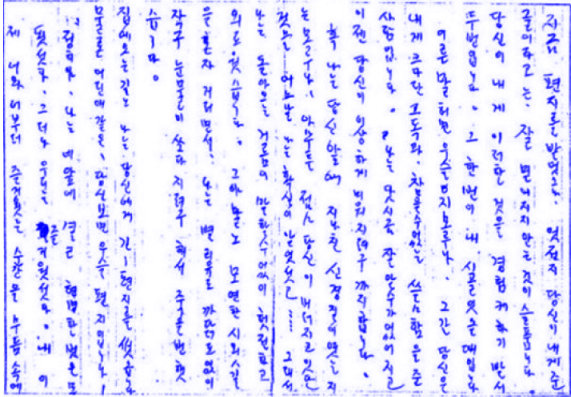
C는 A의 꿈 이야기 듣는 게 좋았다. 대화로는 가능조차 하기 힘든 A의 무의식, 그 모든 무의식마저 깊이 알고 싶고 궁금했다. A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어디서든 A를 느낄 수 있었다. 개울가 옆에 작은 집에서 A와 C는 낮과 밤이 없는 밀월을 즐겼다. A를 따라나설 때 C는 가방 속에 몇 권의 시와 소설, 외국어 사진을 넣어 왔고 A는 그 책들을 사랑했다. A의 고민은 세계의 모든 발음표를 흉내 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A와 C는 자꾸 웃기만 했다.

A는 집에서 주로 글을 썼다. A의 글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기존에 존재했던 글들과 달랐으며 심지어 병적이었다. 이 병적인 것이 A 그 자체였다. A의 이상적인 환상의 세계, 이 세계가 아닌 어느 중간 세계에 있는 것만 같던 A. A와 C의 유일한 탈출구는 동경으로 가는 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넓고 더 큰 세상, 그 세상에 가기만 한다면 이



[그림 1] <오감도>, 이상



[그림 2] 시인 이상이 25세 때 소설가 최정희에게 보낸 연서의 일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은 충분했다. C는 Bar에 나가 일을 하고 빛을 냈고 그 사이 A는 먼저 동경으로 넘어갔다.

A를 따라나서기 위해 일을 하고 틈나는 대로 글을 쓰곤 했다. 그 무렵 모든 날이 C에게는 보기 싫고, 듣기 싫고, 읽기 싫은 날들이었다. A가 그리웠고 글은 잘 써지지 않았으며 삶은 진부하고 괴로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연락은 커녕 생사도 알기 힘든 A. A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루가 바쁘게 흘러갔다. 새벽에나 일이 끝났기 때문에 C에게 온전한 시간이란 없었다. 실상 글 쓰는 시간조차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삶은 너무 버겁고 힘겹기만 했다. 자신을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입히는

일. 그 일마저도 C에게는 힘겹고 서글프게만 느껴졌다. 밀어닥치는 일들을 처리하기 바빴고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지긋지긋했으며, 항상 좋은 인간인 척 연기를 했다. 되도록이면 상냥하고, 되도록이면 온화하게, 되도록이면 친절하고,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좋은 방식으로. 집에 돌아오는 골목길만 돌면 C는 눈물이 났다.

지금 이 상황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없을까. 글을 계속 쓸 수 있을까. 빛은 언제쯤이면 갚을 수 있을까. 동경은, A는. 이 모든 생각은 C를 더 괴롭게, 쓸모없게, 죽고 싶게 만들었다. 버틸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버텨내고 있었다.

계절은 흐르고 우습게도 봄날은 가까워지기만 했다. 그날도 어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조금 날이 따뜻해지고 조금 더 꽃 냄새가 나고 조금 더 외롭지 않고 조금 더 A에게 멀어지던 날들, 아니 생각해보면 그날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날이었다.

유난히 일찍 눈이 떠지던 그날, 창으로 들어오던 햇빛, 내딛는 걸음마다 가벼웠던 그날,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던 그날, C는 그날에 전보 한 통을 받는다.

A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전보. A가 위독하다는데 C는 오랜만의 소식에 반가운 마음과 이상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C는 잘 아프지 않던 사람이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던 사람. 이틀에 걸쳐 도착한 동경에서 A는 누워 있었다. A의 알 수 없는 웃음 그리고 C의 비슷한 웃음. C는 A를 쳐다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생애는 될까. A와 C가.

이번 생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는데 다음 생애는 보통 사람들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와 C가.

다음 생애는 더 좋은 방도가 있을까. A와 C가

A는 그날 그렇게 C의 곁을 떠났다. <사과 한 알이 떨어졌다. 지구는 부서질 정도로 아파다.> C는 오래도록 A의 글을 마음에 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눈을 감고

뜰 때마다 습관처럼 A를 생각했다. A는 역세고 사납게 C의 기억에 자리 잡아 괴롭게 만들었다. C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지만 (다리 한 짝을 걸쳐 올리고 굴 까먹는 여자를 본 꿈, 그 여자는 이내 다시 굴 까던 그릇에 손톱을 짝더니 자신을 힐끗 쳐다보았다는 꿈) 꿈을 이야기하고 나서 A는 꿈속의 그 여자를 꿈속에서라도 좋으니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며 C의 품에서 울었고 C는 그런 A를 품에 안고 어르고 달래며 굴 까먹는 여자를 생각했다. A가 곁에 있을 때도, A가 동경으로 떠난 후에도, C는 종종 그 굴 까먹는 여자를 상상하곤 했다.

A를 잃고 나서 C는 착잡한 젊은 날을 방황했다. 죽도록 술을 먹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던 날들. 세상 모든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심심하던 날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예민한 것들을 찾던 날들. A를 대체할 무언가를 찾던 의미 없는 날들. 종종 선잠이 들면 A의 꿈을 꾸곤 했다.

웃음
비웃음
비슷한 웃음

그렇게 꿈속에서 A와 마주 앉아 웃기만 하는 꿈. 나중에는 웃는지 우는지도 알 수 없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이상한 꿈. 그런 꿈을 꾸곤 했다.

C가 B를 만난 건 계절이 스물네 번 바뀐 어느 여름날이었다. N 시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화가가 있는데 C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고, C는 A 생각에 어물쩍 상황을 모면하지만, 며칠 후 또 그 화가 이야기를 꺼내며 같이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노라고 말한다. 그 무렵 C는 총독부에서 일하며 본격적으로 글을 썼다. 쓴 글을 매일신보에 발표할 수 있었고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C에게는 커다란 행복이었다.

C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말들을 수첩에 적곤 했다. 풀 수 없는 괴로운 마음들을 적다 보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C가 죽는 날. C의 일상 속에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중한 글들. 이 글들이 생명을 가지고 어떠한 존재가 되어 사람들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고 위로하며 깊이 남기를 바라며 글을 쓰곤 했다. 여름 밤새와 여름 바람이 코끝에 내려앉아 기분 좋게 느껴지던 여름밤, 모든 것이 용서될 것만 같던 그날 밤에 C와 B, N 시인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한다. 그렇게 만난 B는 C에게 아무런 인상도 남겨주지 못했다. 애초에 불편한 식사자리였고 C는 빨리 그 식사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 별다른 충동은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B는 C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C는 꿈을 썼다.

A가 C의 등을 안고 하염없이 우는 꿈. C가 입고 있던 옷이 흠뻑 젖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옷을 벗어 쥐어짜 물을 빼고는 터벅터벅 걷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알 수 없는 서러움에 눈물이 계속 나는 꿈. 그런 꿈을 썼다.

며칠 후 C는 편지 한 통을 받게 된다. 기차섬에서 온 편지였다. 섬 이름이 B와 꽤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 우리가 하는 대화들은 기억하지 않으면 허공에 떠돌아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하게 되지만 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C는 대화보다 글을, 편지를 좋아했고 기억에 별로 남지 않았던 B의 편지에 싱그러운 마음이 들었다. 오랜 시간 동안 B와 C는 편지를 나누곤 했다. C의 편지에는 언제나 그림이 있었다. 그 그림이 C는 잘 그린 그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항상 어떠한 기운이 느껴지곤 했다.

끊임없이 촘촘하게 이어진 그 기운들이 C와 B를 이어준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편지만 나누던 B와 C는 어느 날 서울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한다.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데 오렌지를 까는 B를 보며 C는 그 손짓이 무척 야하다는 생각이 든다. 야하고 재밌는 그 손짓을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저녁 식사에서 B는 자신이 초혼은 이혼했고 재혼에 삼 형제가 있다고 말한다. C는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고 그 손짓에 매료되어 그러든지 말든지 아이들은 데려다 교육하면 되고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앞에 놓인 B의 손짓을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저녁 밤이야말로 모든 것이 용서될 것만 같던 밤이었다. C는 그런 충동이 우습고 재미있게 느껴졌고 어찌 됐든 B와 함께라면 모든 지난날들을 보상받고 그 안에서 안락함과 두 번 다시는 오지 못할 편안함을 얻을 거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C와 B는 5월 1일 성북동 274-1에서 결혼을 한다. C는 두 번째 B는 세 번째 결혼이었다. 처음은 아니었지만, 처음이 아니니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사람들은 항상 처음을 중요시한다. 첫인상, 첫느낌, 첫사랑, 첫여행, 첫식사, 하지만 나이를 먹고 삶을 알아 갈수록 처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인생은 계속되는 반복이며 인간들은 같은 굴레 속에서 비슷한 생각으로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성북의 산들이 빛에 번쩍이던 날. 그렇게 B와 C는 새로운 삶을 약속한다.

인생에 한 사람을 끌어들이 영원히 함께하는 일. 결혼이란건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일이었다. 그 무렵 미술계는 처음으로 서울대학에 미술학부를 창설했다. B는 서울대학에 교수로 임명됐고 C는 주로 집안일을 하고 글을 쓰고 B의 그림들을 관리했다. C는 밀린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초록이 눈부신 5월을 만끽하곤 했다. 자신의 생활에 기쁜 마음이 들었고 더 이상의 불안과 외로움은 멀리 있는 것 같았다. 가끔 A의 꿈을 꾸기 위해 억지로 잠을 청하는 날들이 있었으나 A는 꿈에 나오지 않았다. C는 더 자주 보고 사유하고 글로 남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느꼈고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했다.

B는 걱정이 많았다. 결혼 후 B의 나이 30에 인생과 예술을 재출발하기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다.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자신의 그림이 어떠한 경지에 이르기를 바랐다. 가까이 지켜보는 C 역시 고민이 많아졌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없을까. 결혼 생활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어느새 서로를 닮아가고 늙어갔다. 지금 상황도 나쁘지는 않지만, 더 차원 높은 어떠한 세상이 B와 C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림 3] 프랑스에서 김환기와 김향안

B와 C는 그 세계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세계는 너무나도 알 수 없었기에 두렵고 불안했다. 무슨 일을 행했을 때 경험이라며 웃어넘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고 B와 C만을 믿고 따르는, B와 C가 반드시 책임져야만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C는 무슨 방도가 있을 것이고 B의 작품을 위해서라도 지금 생활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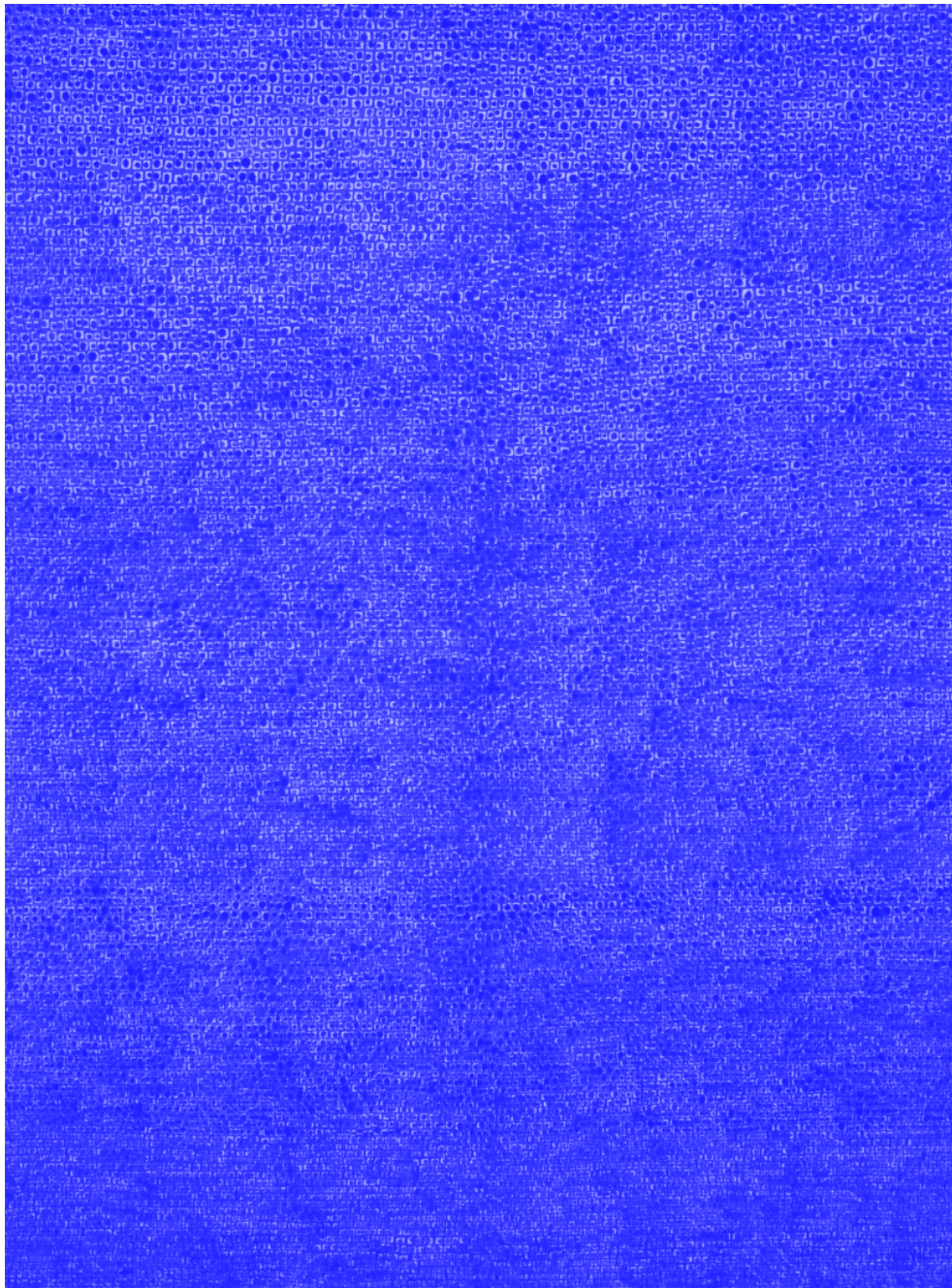
“도대체 내 예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나가 봐.”

“어떻게?”

“내가 먼저 나가볼게.”

C는 B에게 먼저 프랑스로 가겠노라 말한다. 가서 전반적인 기반을 미리 잡고 집도 구하고 언어도 배워 놓을테니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프랑스로 넘어오라고 말한다. 그때 당시 C는 파리에 대한 아무런 예비지식이 없었고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왠지 프랑스에 꼭 가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곳에 가면 생의



[그림 4]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환기, 1970

이유를,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1955년 4월 20일 C는 홀로 프랑스로 떠난다. C는 사진을 보며 불어를 공부하고 카페에 앉아 글을 쓰고 사람들을 구경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위해 애를 썼다. 매끄럽게 구사되지 않는 언어로 방도 구했지만, B를 위한 아틀리에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다. B가 프랑스로 와서 작업할 공간이 필요한데 아틀리에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파리 시내에 있는 수많은 아틀리에가 예술가들의 소유가 아닌 일반인에게 양도되어 살림집이 된 지 오래되었고 그런 아틀리에에는 다시 예술가들의 소유로 돌아오지 않고 연줄 없이는 차례를 얻기 어려웠다. 아틀리에를 빨리 구해야만 B를 프랑스로 오게 할 텐데, C는 종일 길을 걸으며 식사를 하며 센 강을 보면서 아틀리에 생각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루니아라는 친구가 아틀리에를 보러 가자고 C에게 청하고 뒤흘상부르 공원에 2층의 아틀리에를 본 순간 C는 무척 마음에 들어 그곳에서 B가 그림 그리는 상상을 했다. C는 B에게 집과 아틀리에를 구했으니 이제 프랑스에 오면 될 것이라 전하고 나서는 몽마르트르 언덕에 올랐다. 거리의 초상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며 C는 이곳에서 무언가 앞으로가 삶이 바뀔 것이라는 커다란 기대감에 차 있었다.

안개 깊은 파리의 어느 아침 날 B와 C는 다시 재회하고 함께 샹젤리제 거리에 나섰다. 파리의 심장인 넓고 넓은 광장에서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거리 풍경과 사람들을 보았다. C는 B와 걸으며 떨어진 플라타너스 나뭇잎을 주웠다. 더 큰 것이 있으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큰 것으로 바꿨고 그런 행동을 지켜보던 B는 원래 손에 쥐고 있는 플라타너스 잎이 진짜 C의 것이고 바꿔 주운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센 강을 따라 걸으며 C는 이곳에서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의 센강은 어딘지 모르게 서글프고 무한히 아름답고 무언가를 갈망하게 하는 강이었다.

B는 프랑스에 도착한 후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자주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었고 C는 그런 B를 가만히 지켜보곤 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림만 그렸고 나누는 대화들은 모두 그림에 대한 이야기였다. B는 C에게 그림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물었고 그림 이외의 화제는 이야기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C는 B의 아침을 챙기면 루브르에 나가 강의를 듣곤 했다. 강의를 끝나면 화랑을 돌며 미술전을 봤다. B는 언어를 직감으로 알아들을 수는 있었으나 구사하지는 못했기에 C는 미술관 안내와 미술계 소식들을 번역해 전달하고 신문을 읽어 들려주었다.

B는 그림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이 지냈고 C는 그런 B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곤 했다. C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부유해지는 것도, 무언가를 이루는 성취감도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진짜는 사랑을 하는 일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 서로의 영혼에 불을 밝히는 일.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존재로 완성되는 길이었다. B의 그림 세계는 전환점을 맞았다. 초기작과 달라진 프랑스에서 작업이 C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운 좋게 전람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B는 전시 준비로 예민했다. 가뜰이나 시각적인 온갖 것에 관심이 많은 B는 더욱 예민해지고 고집이 더욱 세졌고 C는 그런 B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무렵 C는 문학 서적보다는 미술책을 많이 읽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를 젊은 학도들에게 가르치고 좋은 글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무렵 C는 미술사와 미술 평을 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주 그런 글들을 습작하곤 했다. B는 C에게 '너도 같이 그림 그리면 좋지 않니'라며 유혹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C는 글을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C는 종종 B의 그림 그리는 손짓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 손짓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졌고



[그림 5] 김환기와 김향안

어지러웠으나 이상하게도 보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한국에서와의 생활과 별반 다를 것 없게 느껴졌지만, B의 작업세계와 C의 삶에 프랑스는 꼭 있어야 했던 곳이고 그곳은 둘의 삶을 또 다른 연장선들로 인도했다.

B의 작업은 더욱더 깊어졌고 알 수 없는 묘한 기운을 내뿜었다. 프랑스에서 수많은 전람회를 했고 작업은 공간의 기들을 누르고 사람들은 그림에 압도당했다. C는 B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반복되는 형상들이 좋았고 그 형상들이 촘촘히 이어져 사람들을 불러드리고 머물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B는 모든 시간을 그림에 쏟아부었다. 그림이란 것이 노동 중에서도 중노동이었고 B의 심신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B는 다른 세상을 원하고 있었다.

B는 우주의 중심 어느 곳에 있는 것 같았고 자신의 그림들을 과보호했다. C는 B의 그림들을 관리하고 작업하기에 좋은 요건들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 공부하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C의 인생에 큰 기쁨이었지만 B의 작업을 관리하고 좋은 빛을 받게 하는 것 역시 행복이었다.

프랑스 날씨는 흐리고 자주 비가 왔다. C는 기분이 이상할 때면 미친 사람처럼 포플러 나무를 따라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다가 눈이 멀 것처럼 포플러 나무를 응시하곤 했다.

C는 자주 나무들의 뿌리를 생각하곤 했다.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나무뿌리들이 있는 생각을 하면 C는 묘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B가 나무라면 C는 그 나무의 뿌리 같다는 생각을 했다. 꼭 보이는 것이 전부만은 아니며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면 속에 있는 숨은 무언가를 보는 일도 중요했다.

C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방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깊은 밑바닥에 A를 숨겨 놓았다. C는 종종 계절이 변하는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 문을 열고 했다. 종종 A를 영원히 그 방에서 내보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꼭 그만큼 A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졌다. A의 글들은 A가 죽은 후 많은 논란을 가져왔고, C도 그 논란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C는 그 많은 논란에 굳이 해명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큰 관심이 없다. 그냥 누군가에 대해 떠드는 것이 좋은 것이다. 사람들은 외로우니까.

C는 종종 자신의 메모장에 작은 단상들을 써 내려가는 것이 좋았다. 감정은 아주 일시적이니 순간순간을 잘 기록해야 했다. 단어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문단이 되고 문단이 글이 되는 과정은 매번 흥미로웠다. 글이란 건 시간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훗날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의 시간을 생각했다. 그 시간들은 어디서 어떻게 이 글로 들어온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C는 인생은 종종 견잡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으며 재밌고 신나며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B는 되도록 시간을 아끼고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고민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된 반복이었다.

B의 작업은 일정 수준의 정교함에 도달했고 단순함에서 비롯된 깊은 아우라를 내뿜었다. B는 프랑스에서 더 이상 좋은 작업이 나오기는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B는 프랑스의 생활을 접고 뉴욕으로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작업을 위해서.

그 무렵 B는 근원을 알 수 없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자신과 자신의 그림이 세상에 무언가를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 자신이 생애 이루어야 할 업적들은 모두 뉴욕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땅에서부터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B와 C는 프랑스의 생활을 정리한 후 새롭고 낯선 땅 뉴욕으로 가게 된다. C는 처음 프랑스를 내딛던 두려움과는 달리 새로운 기대감에 찼다. 무엇보다 B와 함께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뉴욕에서의 생활은 온전치 못했다. 뉴욕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B의 그림들은 팔리기 시작했지만 그림이 비싸게 팔린대도 다시 다음 그림의 재료비로 들어가고 생활비는 모자라기만 했다. 더군다나 뉴욕의 그림 시장은 파리와는 달랐다. 엄격하게 말하면 전통을 지닌 화상이 없었다.

투자와 이윤 창출에만 목적이 있었고 예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한다든가, 예술가가 한층 더 좋은 예술을 창조할 수 있도록 애정과 격려로써 후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화상이 없었다.

하지만 예술가는 문화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었고 B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 문화와 함께 새 작업을 시작해야만 했다. C도 전과는 다른 결을 가진 글들을 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자신에 대한 글을, A에 대한 글을, 감정을 소비하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글을 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삶에 대한 글을, B에 대한 글을, 아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글을 썼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여전히 B는 그림을 그리고 C는 글을 썼다. 둘 다 제 일을 마치면 저녁을 먹은 후 산책을 하곤 했다. 저녁임에도 반짝거리는 불빛 때문에 어둠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찬란하고 슬픈 길에서 B는 매일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다. <다음날에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로 시작되어 <그 어디에도 나는 없다>로 끝나는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다.

낯선 땅에서 머무른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서로 늙어가고 있었고 함께한 시간들이 아득했다. 모든 타지 생활이 외롭고 힘들고 알 수 없는 눈물만 나는 일이지만, 뉴욕에서의 생활은 정말로 고되었다.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급진적인 분위기를 감당할 수 없었다. 대도시, 빈틈, 살아 움직이는 것, 가변적, 일시적, 무질서, 혼돈, 각자의 꿈, 본 것, 들은 것, 기이한 것. B와 C에게 뉴욕은 낯설고 잘 기억나지 않는 희미한 꿈 같은 것이었다.

여러 해의 유랑생활은 거창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B와 C의 예술을 위한 것이었고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인간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C는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곤 했다. 생명도 죽음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했다. 삶은 불확실과 존재 이유를 알아야만 한다는 사명감의 연속이었다. 자신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도 사람도 알지 못한다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삶을 살며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람다움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되었다. 무질서와 혼돈의 시절이 있었듯이 안정되고 조화로운 삶도 있었다. 어떤 때는 무르익은 단풍처럼 성숙한 시절도 어느 때는 갓 태어난 아이 같던 시절도 있었다.

길 하나에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듯이 삶 또한 그런 것이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짜가 맞나. 나는 어떠한 인간인가. 타인에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종일 하기도 했다. 어떨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온 마음이 들끓을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미친 듯이 증오하던 시절도 있었다.

삶은 길을 말해주지 않았다. 삶은 그저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선택의 연속이었다. 삶은 비극적이고, 희극적이고,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이 모든 것을 떠나 살아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B의 삶은 온전히 그림을 위한 삶이었다. 꿈에서도 그림을 그리곤 했다. 때로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날이 올라 두렵기도 했다. 그림을 시작한 이유는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작업이었다. B만의 슬픔을 희석하는 방식이었다.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지금 사는 세계와 그림 속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의식 상태가 좋았다.

씨도 씨도 돈이 나오는 마법 상자가 있어 실컷 물감을 사고 캔버스를 사고 싶었다. 그림을 팔아 C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기도 했고 좋은 곳에 데려다주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림을 팔고 나면 아팠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림을 그릴 때면 목에 통증이 오곤 했다. 처음에는 뼈근함, 시간이 갈수록 육신거렸고 나중에는 목을 드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목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뒤늦게 안 목 디스크라는 판정과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에도 B는 마저 못 그린 그림 생각만 했다. 이대로는 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판단에 B는 위험한 수술을 받기로 한다.

7월 7일

유나이티드 병원 입원 450호
병원에 가는 길, B는 C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문을 열고 닫잖아.
오늘 작업실 문을 닫는데 내가 다시 이 문을 열 수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7월 12일

목 뒤 척추 오후 1시 수술
그날은 비가 많이 왔다.

C는 마침 한국은 장마 기간이겠거니 싶었다.

7월 25일

B는 인생에서 영원한 휴일을 맞게 된다. 생명도 죽음도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했다. 인간이 인생에서 저항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죽음이었다.

‘너는 정말 죽은 것일까. 사람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우주가 텅 빈 것 같다.’

9월 24일

잠을 못 이루다가 간신히 잠들었다.

꿈을 꾸고 깨어났다.

소천의 다정한 모습으로 꿈꾸리라는 편지를 생각한다.
다정한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살아났으면.

11월 6일

55년에, 또 64년에 나는 혼자 너를 만나러 오던 길.
신나게 비행기를 탔었는데 인생이 모두 거짓말 같다.

11월 18일

지중해는 여전히 녹색, 나 혼자 여기에 다시 올지 몰랐다.
남불은 핑크색, 돌도 흙도, 하늘은 녹청색. 잡자는 듯
꿈꾸는 듯 고요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좋아했던가.
다시 마음이 슬퍼진다.

5월 20일

5월의 사랑, 꿈, 아름다운 자연을 같이 나눌 사람은 하나
밖에 없었다. 사람은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것인데 혼자
살지 못하는 모순은 무엇일까. 한 사람이 가고 나니 5월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 별들은 많으나 사랑할 수
있는 별은 하나 밖에 없다.

C가 겪는 두 번째 이별이었다. 제대로 된 수면을 식사를
언제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다만 머릿속에 맴도는
‘너도 같이 그림 그리면 좋지 않니.’

B가 떠난 후 C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 습관적으로
붓을 들기 시작했다. B가 없는 화실에서 C는 B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물건들로 그림을 그렸다.



[그림 6] 환기미술관, 서울시 부암동

C는 몇 날 며칠 B의 그림들을 가만히 응시했다. 문득 ‘이 그림들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림들로 인해 B에게 영원한 삶을 부여하는 방법은 없을까. 시공간을 초월해 B가 영원히 기억될 방법이 없을까.

C는 우연히 B의 유품을 정리하며 일기장 한쪽에 적어둔 B의 꿈을 발견한다. 자신의 그림이 가장 잘 어울리는 미술관을 만드는 것. C는 서둘러 한국으로 귀국한다. B의 못다 한 꿈을 이루고 B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C는 B의 작품들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작품은 물론, B에게 받았던 편지들, 사용하던 화구들, B가 피고 남은 담뱃갑까지. 작품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좋은 그림들은 세계 각지의 미술관에 기증했다. 보관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C는 한국에 돌아와 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 많은 땅을 보러 다녔다. 기운이 마음에 드는 땅이 없었지만 그래도 상상과 가장 근접한 부암동 산자락에 땅을 사고 우수한 젊은 건축가 우규승과 함께 건축을 시작한다.

B의 미술관은 천장이 높아야만 했다. B의 작품이 대부분 대형 캔버스로 작업한 것이어서 천장이 낮으면 작품을 보는데 큰 방해가 되었다. 대공사가 시작되었다.

C는 수년을 미술관 건축에만 온 신경을 몰두했다. B의 그림을 세상에 내보이는 일, 그로 인해 B가 영원히 세상에 기억되는 것, 그것이 B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C의 슬픔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C는 미술관 개관준비와 함께 자신의 생을 다룬 수필집 한 권을 낸다. A와 B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 긴 꿈만 같은 이야기, 무작정 슬퍼지는 이야기, 그래도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책 한 권을 낸다. 자신의 글이 훗날, 이름 모를 사람들의 시공간과 함께하길 바라면서 글들이 생명을 가지고 어떠한 존재가 되어 사람들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고 위로하며 깊이 남기를 바라면서….

한창 무르익어 찬란한 빛을 내던 나뭇잎들이 새 준비를 위해 무수히 바닥에 내던져지던 11월의 어느 날, 환기미술관은 개관했다.

Part 2.

디자이너의 글쓰기 Designers' Writing

박찬욱의 여자들 Park Chanwook's Women

이소희
Lee Sohee

SM 엔터테인먼트 디자이너 Designer, SM Entertainment

친절한 금자씨

금자씨는 20살에 아동 유괴 살인범으로 13년 형을 살고 나왔다. 눈에는 불친절한 빨간 아이섀도우를 바르는데 이유는 친절해 보일까 봐서이다. 빵에서 배운 제빵 기술로 빵집에 취직해 3개월 치 월급을 가불 받았다.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계획한 일이다. 그런 이유에서 금자씨는 퇴소한 날 두부를 먹지 않았다. 두부를 건네는 이에게 길이길이 남게 될 한마디를 했을 뿐이다.

“너나 잘하세요...”

박쥐

태주는 딱딱한 뒤꿈치를 가졌다. 매일 밤 골목을 맨발로 달리기 때문이다. 시엄마와 남편은 몽유병에 걸려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 시간만 깨어있는 것 같고, 나머지 시간은 자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태주는 자고 있는 시간 동안 콧물을 흘리는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보거나 시엄마가 하는 한복집의 마네킹처럼 앉아있을 뿐이다. 여느 때와 같이 밤에 맨발로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데 신부님이 신발을 신겨준다. 그러자 태주가 말했다.

“나는 부끄럼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가씨

숙희는 싹싹한 하녀가 되기 위해 히데코의 집으로 왔다. 히데코는 숙희를 불쌍한 조선인 하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남자와 짜고 히데코를 등쳐먹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천지 간에 아무도 없는 히데코가 가여워진다. 숙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한다. ‘나는 아주 부자가 되어서 아주아주 먼 항구에 가고, 이름도 모르는 것들을 먹고, 반짝거리는 것들을 잔뜩 사고, 히데코 생각을 하지 않고, 히데코 생각을 절대 하지 않고.’ 히데코는 고아인데다 아버지가 부자였다. 그래서 저택에 산다. 생쥐같은 숙희가 하녀로 들어왔는데, 밤이면 자신의 잠꼬대까지 엿들었다가 남자에게

옮겨주고, 낮이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남자를 사랑하게끔 살살 꼬신다. 바보 같은 속회를 지켜보고 있자니 웃음이 난다. 히데코는 저 대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텐데 한 치 앞도 못 보고 저를 가엽게 쳐다보는 속회에게 말한다.

“속회야, 내가 걱정돼? 난 네가 걱정돼.”

[redacted] <홍상수의 한심한 남자들>이라는 글을 봤다.

[redacted] 나는 홍상수의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다.

[redacted] 구차하고 못나고 한심한 [redacted]

[redacted] 못난 남자 파티 [redacted] 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을 징그러워하면서

또 좋아하는 [redacted]

[redacted] 코믹장르 쪽으로 여겼다.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홍상수의

영화들은 [redacted] 어쩌면

[redacted]

[redacted] 자기 위로와 자기 미화 [redacted] 로 [redacted]

남자들을 위한 로맨틱 코미디를 만드는 게 아닐까?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반대 선상의 여자들을 그리는

감독이 누가 있을까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나는 박찬욱을 떠올리게 되었다.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원래 박찬욱은 여성 캐릭터를 잘 그리기로

유명하기도 했으니.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박찬욱의

[redacted] 여자들에 대해서 나열해보고 싶을 뿐이다.

[redacted]

[redacted]

[redacted]

<미스슬로온> [redacted] <히든피겨스> [redacted]

[redacted] 제목을

정해보자면, <박찬욱의 이상한 여자들> [redacted] ?

아니면 <박찬욱의 아름다운? 특이한? 알 수 없는?

여자들> [redacted]

[redacted]

박찬욱의 영화에는 항상 이상한 사람들만 등장한다. 나는

이 중에서도 음모와 협잡을 꾸미는 박찬욱의 여자들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한 명은 흡혈귀고, 한 명은

살인범에 나머지 둘은 하녀와 아가씨이다. 이 범상치 않은

여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든다.

‘남자 정치인과 남자 조폭이 꾸민 음모와 협잡을 남자

경찰이 해결해 정의 구현하는 영화를 더는 보고 싶지

않네…

나는 [redacted]

한국영화를 [redacted] 좋아한다. [redacted] 요즘은 [redacted]

잘 보지 않는다. [redacted] 말했다시피 [redacted]

그들만의 우정, 그들만의 정치, [redacted] 선의 [redacted]

칼부림과 주먹다짐 [redacted] 장례식 [redacted] 술을 마시고

또 [redacted] 주먹다짐을 하고 갑자기 [redacted] 어깨동무를 한다.

그리고 [redacted] 하늘을 [redacted] 서로를 바라보거나

나란히 걷는다.

사실 [redacted] 여자 대통령이 여자 비선
실세와 음모를 꾸민 것을 여자 대법원관이 위헌판결을
냈 [redacted] 다. [redacted]

[redacted] 박찬욱 [redacted] 내가 처음 본 그의
영화는 <올드보이>였다. [redacted] 올드보이는 남자 두 명이
[redacted] 남자들을 죽이고
서로 [redacted] 죽이는 내용이다. (나는 오대수를 [redacted]
[redacted] 죽었다고 생각한다.) [redacted] 여자는
겨우 [redacted] 미도와 [redacted]
수아 [redacted]
[redacted] 이상한 영화 [redacted] 구나라고
생각했 [redacted] 다. [redacted]
[redacted]

[redacted] 두 번째로 본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 [redacted]
1)였다. 금자의 [redacted] 화면을 응시하는 [redacted]
[redacted] 세상 모든 것에 흥미 없어 보이는 표정이
흥미로웠다. [redacted]

[redacted] 복수하는 것에만 흥미가 있어 보이는 금자는
[redacted] 박원모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redacted] 예쁜 얼굴
때문에 [redacted] 유명해지게 된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redacted] '친절한 금자씨' [redacted]
동시에 '마녀 이금자' [redacted] 가 [redacted] 된다. [redacted]
출소 뒤 눈두덩이를 빨갱게 하고 [redacted]
[redacted] 박원모 [redacted] 가족에게 [redacted]
손가락을 자르면서 용서를 빈다. [redacted] 딸에게
[redacted] 4번 [redacted] 용서를 빈다. [redacted]
[redacted] 금자는 결국 백 선생과 마주한다. [redacted]
그의 얼굴에 붙은 밥풀을 떼어주고 [redacted] 쓰다듬고
가위로 [redacted] 머리를 자른 후 그에게 유괴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을 불러 [redacted]
자신 뒤통의 복수를 넘겨주 [redacted] 고
죽은 백 선생에게 두 발의 총을 쏘는 것으로 [redacted]



[그림 1] 영화 <친절한 금자씨>

마무리한다. 그녀는 [redacted] [redacted] 사죄와 복수의 과정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자 한다. [redacted] 마침내 [redacted] 원모와 마주한다. ([redacted] 진짜 [redacted] 이기도 [redacted] 가짜 [redacted] 이기도 하다.) 원모는 [redacted] 금자를 바라보다 금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라진다.

금자는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4번의 용서를 받고 자신 몫의 복수도 다른 이들에게 양보했지만 “그래도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

금자는 박찬욱 영화의 최초의 여성 주인공이다. “누구나 돌아볼 만큼 예쁘지만 까다롭지 않은 소녀” [redacted] [redacted] 였던 19살의 금자는 아이를 가지게 된다. 아이의 [redacted] [redacted] 어른을 필요로 했고 그 때문에 자신의 딸도 유괴당한 채 유괴범으로 감옥에 가게 된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본다. 이 이야기는 모정의 복수극인가? [redacted] “What do you call mom in korea?” [redacted] “금자 씨” [redacted] [redacted] 모든 일이 제니 [redacted] 에 [redacted] 서 비롯된 것임에도 [redacted] [redacted] 소녀의 절절함을 찾아볼 수 없다. [redacted] [redacted] 이 이야기는 모정의 복수극인가? 그렇지 않다. [redacted] 모정의 복수극을 펼쳐야 했다면 이 이야기는 [redacted] <비밀은 없다>가 되었을 것이다.

[redacted] 영망이 된 금자는 복수 [redacted] 과정에서 [redacted] ‘착한 일’을 하게 된다. 백 선생이 유괴했던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redacted] 복수할 기회를 주는 것. 그녀는 [redacted] 백 선생을

심판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럴 처지가 못된다. [redacted] 공범이기 때문이다. [redacted] 사실 금자는 [redacted] 이렇다 할 복수를 하지 않는다. 그의 발에 총을 쏘고 [redacted] 제니와의 대화에 [redacted] 이용했을 뿐이다. [redacted] 금자의 복수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redacted] 금자는 [redacted] [redacted]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 [redacted] [redacted] 원모는 이미 죽었기에 그녀를 구원해줄 수 [redacted] 없다. 사실 금자에겐 남이 해주는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딸 [redacted] 의 용서로 절반의 구원을 얻었지만, [redacted] 스스로 구원을 구하지 못한 금자는 [redacted] 자신이 만든 케이크에 머리를 묻을 뿐이다.

금자는 본능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깨끗 [redacted]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redacted]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친다. 그녀의 발버둥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 [redacted] [redacted] 지만, “그래도 나는 금자 씨를 좋아했다.”

<친절한 금자씨>를 끝으로 복수 3부작을 완성한 박찬욱은 [redacted] [redacted] 로맨스 영화인 <박쥐> [redacted] [redacted] 2를 만든다. [redacted] 이 영화의 주인공은 태주이다. [redacted]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는 [redacted] 포스터의 김옥빈이 너무 좋아서였다.

태주는 [redacted] 자신을 “딸처럼 강아지처럼 키운” [redacted] 라 여사의 아들인 강우와 결혼을 한다. 태주는 [redacted] 견딜 수 없는 표정으로 [redacted] [redacted]

지루한 나날들을 살고 있다. 집 앞을 맨발로 뛰어다니는 태주는 딱 그 나날들만큼의 딱딱한 발뭉꿈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신부님 상현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맨발로 뛰어다니던 태주에게 신발을 신겨준 신부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태주는 신부님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든다.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태주는 매일 축축한 벗어나지 못할 물속에 잠겨있게 된다. 지옥에서 구함 당하지 못한 태주는 죽고자 했지만 다시 태어나 처음으로 생일을 가지게 된다. 지옥에서 다시 태어난 그녀는 여우가 닭 잡아먹듯 살지 못한다. 라 여사가 눈을 깜박이며 경멸의 눈으로 태주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태주는 지옥 같던 행복 한복에서 살고자 발버둥 쳤지만 피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신발을 신고 그와 함께 지옥으로 간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신부님.”

이 영화는 나의 심금을 울렸는데, 여배우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너무 예뻐서 눈을

놓고 봤다.

금자가 구원을 원한 것처럼 태주 역시 구원을 원했다. 태주는 지옥 같은 집에서 꾸역꾸역 사는데 어떻게 그 성질을 죽이고 사는지 아무래도 본인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다. 일부러 신발을 벗고 뛰지만, 사실은 항상 신발을 원했던 지옥에서 사는 여자는 부끄럼을 타는 여자가 아니었다. 다시 살아난다. 태주가 뱀파이어가 되는 것은 마치 빼앗겼던 운명을 되찾는 일이다. 그녀는 밤마다 자지 않고 온 동네를 뛰어다녔으니까 자유를 꿈꾸면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이상함에서 '자유를 원하는 자신'만을 구해낸 운명적인 일. 그녀는 그런 운명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남편의 입 위로 쪽 가위를 밀어 넣는 시늉만 하지만 자신의 허벅지에는 밀어 넣는다. 태주는 신부님이 자신의 친구를 죽이는 그 커다란 죄를 선행을 위한 악행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둘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어쩌면 태주는 그저 일탈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엄마, 난 이제 끝이에요, 저 남자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사랑하지만 죽이고 싶은 태주와 사랑하지 않지만 죽일 수 없는 라 여사가 웃겼다.

그래도 언제나 먹을 건 배불리 먹게 해주는 라 여사를 엄마라고 불렀으니까. 결국, 라 여사가 보는 앞에서 타 죽는 것은 지옥에서 하는 회개. 이 축축한 영화, 물침대와 수요일 모임 오아시스, 저수지 익사한 강우. 그리고 “태주 씨는 무슨 물속 같아요.”

일본식 적산가족 한복점 마작 보드카 카톨릭을 믿는, 이 모든 것이 섞인 이상한 영화에서 태주는 가장 이상하고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아름답다. 그것만으로도 태주는 의미 있다.

상헌과 태주는 지옥을 갔을까? 내 생각은 아니다. 태주는 신앙이 없어서 지옥에 갈 일이 없다. 태주의 말처럼 모든 것은 “죽으면 끝-”

〈친절한 금자씨〉와 〈박쥐〉 이후 또 다른 여성 주인공 영화 〈아가씨〉가 개봉한다. 반전영화 같기도 한 이 영화는 재미있게도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아가씨〉는 속희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우중충한 저택에 사는 히데코의 하녀로 들어간다. 한밀천 잡아서 조선 땅을 뜨고자 발을 들여놓은 연극에서 속희가 히데코에게 부탁받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림 2] 영화 〈박쥐〉



[그림 3] 영화 〈아가씨〉

것이였다. 인형 놀이를 하듯, 아기를 돌보듯, 히데코를 씻기고 입히고 사탕을 물린다. 가짜에 맘을 뺏기는 아가씨를 가여워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매 순간 아주 웃기게도 히데코의 생각만 한다.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물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히데코의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처음부터 그냥 나쁜 년이다.” 히데코는 정신 나간 이모와 조금 미쳐있는 상태로 살았다. 벃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은 이모에게 낭독을 물려받아 책을 읽던 어느 날, 자신을 유혹해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낭독회를 찾아온 백작과 마주한다. 눈치 빠른 백작은 거래를 하기로 한다. 둘은 얻고자 하는 결실을 위해 하녀로 쓸만한 계집아이, 숙희를 데려온다. 어리숙하고 순진한 자신을 연기하면서 어리숙하고 순진한 숙희를 속이는 건 히데코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곧 자신도 숙희를 속이는 것을 관두고 싶어졌다. 벃나무 밑에서 자신의 다리를 받치고 우는 숙희를 보며 말한다. “속은 건 너야. 미안해 하진 않을게, 너도 날 등쳐먹으려고 했으니까.”

다음 이야기는 두

남자에게로 넘어간다. 사기꾼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고 헛바닥이 까만 외삼촌은 지하실에서 눈을 감는다.

히데코의 말처럼 둘은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 준다.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마코, 나의 숙희.”

아가씨는 오랜만에 개봉하는 박찬욱의 영화였다.

숙희는 유명한 여 도둑, 전설적인 소매치기의 딸이다. 사기꾼의 계획에 협조 그녀가 아가씨인 히데코를 보면서 하는 독백들은 전부 이런 식이다. “가련하잖아, 엄마도 없이 혼자..”, “가엽구나” 히데코를 등쳐먹기엔 숙희는 너무 연민이 많고 히데코를 애지중지한다. 부자가 되려던 그 커다란 결심과 다르게 여태껏 자기 손으로 씻기고 입힌 아가씨를 사랑하게 된다. 자신이 사기꾼 행세를 하고 있는 줄 알던 숙희는 사파이어와 스피넬을 구분할 수 있지만 히데코의 거짓말은 구분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타고나신 숙맥이

아닌 히데코는 이 이야기에서 [redacted] [redacted] 모두를 속이는 여자. 자신 대신 정신병원에 집어넣기 위해 [redacted] 그녀를 원했고 그 덕분에 [redacted] 숙희를 만난다. 쿵광거리며 걷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숨 쉬는 숙희를 지켜보다가 [redacted] 한편을 먹 [redacted]고 [redacted] 사기꾼과 변태를 지하실로 보낸 뒤 본인들은 자유와 사랑을 얻는다.

사실 이 영화에선 모두 [redacted] 사기꾼이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사랑? 사기꾼이 사랑 하나요?” 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히데코와 숙희 둘 다 사기꾼 [redacted]을 비롯듯이 [redacted] 사랑을 한다. 이 이야기에서 [redacted] [redacted] 사랑과 쾌락은 온전히 여자들의 것이다. 히데코와 숙희만에 이 영화에서 사랑과 쾌락을 얻는다.

[redacted] 히데코는 많은 신발 중 한 켤레를 숙희에게 준다. 박쥐에서 [redacted] [redacted]처럼 [redacted] 신발을 내어준다. [redacted]

[redacted] 히데코는 자신의 신발과 숙희의 인생을 맞바꾼다. 어쩌면 숙희가 히데코의 [redacted] [redacted]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히데코와 숙희는 사랑을 향해 떠난다. 히데코는 이제 [redacted] 책 읽으러 가지 않아도 되고 숙희는 [redacted] 엄마보다 큰 사기꾼이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가씨를 다 보고 나니 나도 박찬욱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상에 많고 많은 계집애 중에 하필이면 숙희를 보내줘서 약간 고맙다고”

[redacted] 이 영화들은 단단하고 직선적인 어투의 여자들이 나와서 [redacted]

[redacted] 마치 모든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는 걸 아는 듯이 제멋대로 군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풍경은 박찬욱 영화만이 가진 매력이다.

[redacted] [redacted] 여자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낸다. [redacted] 그 끝 [redacted]을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redacted] 거짓말을 하거나 유혹해서 어딘가에서 탈출한다. 그들의 음모와 협잡은 모두 자유를 향한 길이다.

박찬욱의 영화에는 항상 이상한 여자들이 등장한다. 나는 이 중에서도 음모와 협잡을 꾸미는 박찬욱의 여자들에 대해서 말해보았다. 한 명은 흡혈귀고, 한 명은 살인범에 나머지 둘은 하녀와 아가씨이다. 이 범상치 않은 여자들을 들여다보고 냐더니 이런 생각이 든다.

‘여자 정치인과 여자 조폭이 꾸민 음모와 협잡을 여자 경찰이 해결해 정의구현하는 박찬욱 영화를 보고 싶네...’

Part 2.

디자이너의 글쓰기 Designers' Writing

나쓰메 소세키 『마음』의 공간 속 심리 탐구 A Psychological Exploration within the Spaces in 『Kokoro』 (Natsume Soseki)

조혜연

Cho Hyeyeon

스튜디오 AAC 디자이너 Designer, Studio AAC

여러분,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은 몇 시간을 앉아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경우도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 1: 현장에 나가는 것이요.

사람 2: 사람을 만나는 일이요.

현장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머리로 익히는 것도 삶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진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유익할 때가 있죠.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며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답 해주셨던 것과 같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는 더 큰 것을 배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현장에서의 경험'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며 서로 생각을 나누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관계를 지속한다면 처음에는 없었던 사소한 감정들까지 생겨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초반에는 내가 가진 관대함보다 비교적 더 큰 관대함을 상대에게 베푹니다. 평소보다 1.5배 더 크게 웃어주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도 좋다고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떨까요? 다시 내가 가진 관대함 그 정도에 머무르게 되면서 쉽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거치며 경험한 그 사람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변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겠지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겪는 '마음 고생'에 대한 이야기를 쓴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본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입니다. 나쓰메 소세키는 『마음(こころ)』이라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마음 탐구를 시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파악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선생님'이라는 인물은 세상과 단절하며 고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내면의 자아와 겉으로 행동하는 자아 사이의 괴리감에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진짜 마음 혹은 본질과 마주했을 때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자신의 진짜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초라하고 씁쓸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씁쓸한 경험을 매우 섬세하고 솔직하게 재구성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작품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과 나>, <부모님과 나>, <선생님과 유서>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마지막 3부인 <선생님과 나>는 이 작품 주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나>는 '선생님'이라는 인물이 청년인 '나'에게 남기는 유서 편지로 전개됩니다. 이 속에서 선생님은 청년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 놓으며 자신이 왜 고독하게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왔는지를 알려주면서 마지막에는 목숨을 끊게 되죠. 결국 죽음을 택하게 만든 선생님의 과거는 무엇이였을까요?

선생님의 과거로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어려서 중학생 시절에 부모님 두 분을 잃게 됩니다. 그 후 숙부에게 맡겨지게 되고 선생님은 자신이 존재할 수 있게 한 사람이라고 설명할 만큼 숙부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결국 숙부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의 절반 이상을 빼돌리고, 선생님은 그 이후 염세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변해 가죠. 그렇게 조금 남은 유산을 가지고 도쿄에 올라와 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가정집에서 하숙생을 구한다는 소리를 접하게 되고 어느 부유한 군인 유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선생님은 돈을 잃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살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순수했습니다. 처음 하숙집에 들어가 하숙집의 딸인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하죠. 하숙집 방에 들어박혀 지내던 선생님은 아주머님과 아가씨의 친절함과 따뜻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친밀해집니다.

선생님에게는 친구 K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인 K는 자신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가족 갈등을 겪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꼭 지켜봐 온 자신에게도 책임을 느끼며 K가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이 지내고 있는 하숙집에 데리고 옵니다. 아주머님은 여러 이유로 하숙생을 또 받는 것을 거부하지만 선생님의 거듭된 부탁으로 K를 받게 되죠. 처음에는 자신보다 더 동굴 속에 지내는 친구를 위해 아주머님과 아가씨를 친구의 방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야기도 시켜주는 등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가씨가 자신의 방이 아닌 친구 K의 방에서 숙닥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게 아가씨와 친구에 대해 의심과 질투의 마음을 품게 되죠. 여기서부터 선생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마음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친구 K는 아가씨에게 고백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또한 그러한 생각을 하던 찰나였지만 이미 친구가 먼저 뱉어버린 말이라는 생각에 자신 또한 아가씨를 좋아한다고 털어놓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K가 자신보다 먼저 아가씨에게 고백할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친구에게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더욱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자신의 행동과 진짜 마음 사이에서 괴로워하게 되죠. 이후 K와 선생님 사이에서는 질투와 의심의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두 사람의 미묘한 행동들이 엇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더욱 자신의 마음과 싸우게 되죠.

결국 이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결말의 핵심이기도 하죠. 결말은 우선 흐릿하게 남겨두고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가며 풀어보도록 해요.

여러분들께 조금은 자세하면서도 대략적인 이야기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어떤 걸 느끼셨나요? 혹시 이 작품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사람3: 편지형식으로 쓰였다는 점이요.

사람4: 학생에게 유서를 남겼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정말 신뢰했나 싶기도 하고요.

사람5: '선생님'이 하숙집을 통해 의심 많은 성격을 고쳤다가도 다시 그 속에서 의심 많은 자신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하숙집 자체 안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도 재미있어요.

모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인 <선생님과 유서>는 편지 형식으로 쓰이다보니, 우리는 오로지 선생님의 시선으로만 친구 K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독자는 선생님이 남긴 K에 대한 제한된 힌트들을 가지고 K라는 인물을 추측하며 읽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K에 대해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지며 읽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선생님과 나>, <부모님과 나>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세키는 1인칭 시점을 사용하면서 독자들을 이야기에 빠져들게끔 유도한 것이죠.

두 번째 학생이 말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이 학생에게 유서를 남겼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었지만 앞 부분을 살짝 말씀해 드리자면, 1, 2부에서 학생인 '나'는 선생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매일 다가가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열렸겠지요? 그렇게 선생님은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나'를 위해, 혹은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사하기 위해 유서를 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숙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작품의 이야기는 하숙집을 배경으로 하숙집 안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거의 모든 주요 사건들이 하숙집 안에서 일어나죠. 상대적으로 하숙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또, 하숙집 안에서 선생님의 성격이 온화해졌다가도 의심덩어리로 변하는게 인상 깊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작품에서 하숙집 내부는 등장 인물들의 행동과 마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숙집이라는 공간이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평소에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공간을 생각해 봅시다.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하는 '집'이 될 수 있겠네요.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에게 혼나고 방문을 꽁 닫고 들어가 나만의 시간을 가졌던 경험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혹은 누군가 긴밀한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몰래 들어본 경험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평소에도 공간 속에서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쉽게 드러납니다. 공간은 우리와 뗄 수 없이 긴밀한 감정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공간의 기류를 느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이 다투셨거나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의 집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자기도 모르게 집에 들어온 순간, 집 안의 적막함과 찬공기가 느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공간과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 역시 공간에 의해 지배받기도 합니다.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이라는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 고생, 고독함을 세밀하게 잘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하죠. 이야기의 배경이 하숙집으로 한정된 것이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소세키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숙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주인공인 선생님의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는 선생님이 하숙집에 생활하기 전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부모님이 모두 일찍 병으로

돌아가신 후 숙부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선생님은 숙부를 아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부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선생님은 숙부의 계략에 놀아날 뻔 하죠. 그러면서 집의 재산 일부를 잃게 되었고, 숙부에 대한 신뢰 또한 잃게 되죠.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어느날 갑자기 잃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부모님과 함께 했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집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슬픔일 것입니다. 『마음』에서도 선생님은 청년인 '나'에게 쓰는 유서에서 자신의 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애 같은 나는 고향을 떠나도 아직 마음의 눈으로 고향의 집을 애뜻하게 바라보고 있었네. 물론 아직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나그네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 아무리 도쿄가 좋아서 올라온 나라고 해도 방학이 되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굳게 갖고 있었어.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눈 뒤에 방학에는 돌아갈 수 있는 고향집을 자주 꿈속에서 보았지.

여러분들 중에 이사를 많이 다니는 분들도 계시데고, 한 곳에서 계속 사시는 분들도 계시 겉니다. 하지만 누구나 내가 태어나고 유년시절을 보냈던 첫 번째 집은 선생님이 느꼈던 고향집에 대한 마음과 같이 어딘가 모르게 좀 더 애뜻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시인인 가스통 바슐라르는 집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상을 담은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년기의 집을 '오랜 세월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옛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어린 몸짓, 가장 어린 시절의 몸짓이 문득 되살아 나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살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의 경험은 곧 우리의 생각과 기억의 틀을 만들게 되죠. 이런 생애 초기의 경험과 이후 행동의 연결은 사실상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선생님의 염세적이고, 의심이 많은 성격은 부모님의



[그림 1] 도쿄의 고이시카와, 혼고다이 주변(사진 출처: 구글맵)

죽음을 지켜보고 숙부의 욕심에 놀아난 불운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친척들마저 잃은 선생님은 혼자가 됩니다. 사실 그 이후 오히려 더 홀가분한 삶을 사는 듯 보이죠. 사람에 대한 불신, 의심이 더 커진 채 자신 스스로가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며 홀로 서는 방법을 배워 나갑니다. 선생님의 눈 앞에는 수많은 선택 사항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몸을 두고 살아갈 '집'이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그에게는 '어디서' 살 것인가가 문제였던 거죠.

그는 대략 도쿄의 혼고다이와 고이시카와 사이에서 하숙집을 찾게 됩니다. [그림 1] 그렇게 딸과 어머니 둘이 사는 군인 유족의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작품에 나온 여러 가지 단서들을 근거로 선생님이 하숙집에 들어간 시기는 대략 1897년 전후입니다. 동양에서도 특히나 현대화가 일찍 찾아온 일본에서는 이미 이 당시부터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을 위한 하숙집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하숙 전용 건물을 지어 많은 하숙인을 두는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하숙하던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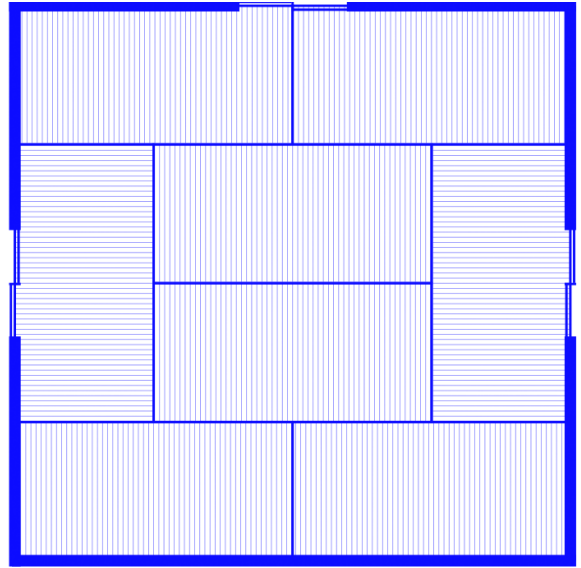
근처의 도쿄 대학에도 이미 3층 짜리의 ‘혼고관’이라는 하숙집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더 고급화된 ‘고등 하숙’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하숙인들을 싸게 많이 수용하기보다는 널찍한 방과 도쿄노마가 달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고등하숙들도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죠. 도쿄노마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등하숙들이 주변에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찾은 일반 가정집의 방은 그러한 고등하숙의 방들보다도 훨씬 좋은 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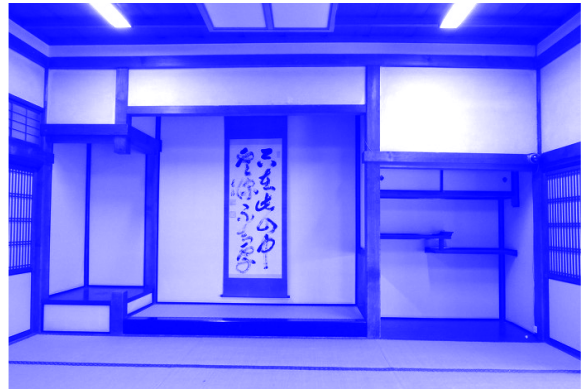
나는 당장 그 집으로 이사했네. 처음에 갔을 때 부인과 이야기를 나눴던 방을 쓰기로 했지.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이었네. 혼고 주변에 고등하숙이라는 집들이 드문드문 지어지기 시작한 무렵이라 나는 학생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을 대강 알고 있었거든. 내가 새롭게 주인이 된 방은 그런 방들보다 훨씬 좋았네.

선생님의 방[그림 2]은 손님을 대접하는 공간이었고 선생님 또한 주인 아주머니와 처음 대화하던 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랑방과도 같은 개념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쓴 방이겠지요? 그렇게 좋은 방을 주인 아주머니는 선생님에게 내놓으셨던 겁니다. 가장 좋은 방을 내준다는 건 우선 선생님의 인상이 나쁘지 않게 다가왔다는 것을 살짝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요. 실제로 아주머니는 자신의 외동딸과 선생님이 잘 되길 바라면서 하숙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아가씨와 선생님이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틈을 마련하는 행동을 하시기도 하죠.

선생님의 방은 다다미 여덟 장이 깔린 방이었습니다. 다다미 여덟 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방인지 짐작이 잘 안가시겠죠? 일본에서 사용되는 전통식 바닥재를 다다미라고 하는데 속에 5cm 정도의



[그림 2] 선생님의 방



[그림 3] 도쿄노마와 도쿄바시라

두께로 벗집을 채우고 겉은 골풀로 만든 돛자리를
씩워 꿰매 직사각형의 형태로 만듭니다. 보통 3자×6자
(910mm×1,820mm)가 다다미 한 장의 크기인데
보통 체격의 남자가 누울 정도의 크기입니다. 대략
8명의 남자가 방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대략 짐작이
되실까요? 선생님의 방이 어떠했는지 좀 더 단서들을
찾아볼까요?

도코노마 옆에 아래위로 어긋나게 단 선반이 있고
툃마루 반대쪽에는 2미터가 좀 안되는 넓이의
벽장이 있었지. 창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 대신
남향의 탃마루로 햇빛이 환하게 잘 들어왔네.

여기서 아까 일본 고등하숙집들에서 있었던 도코노마가
또 등장합니다. 도코노마는 방 한 칸에 인형이나
꽃꽂이로 장식하고 붓글씨 등을 걸어 놓는 곳을
말하는데요. 벽쪽으로 움푹 패여 있고 바닥이 방바닥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코노마는 원래
불교와 관련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불화를 걸고,
경전을 펼칠 수 있는 책상에 행로나 화병, 촛대를
장식하는 장소였지요. 그러다 점차 무사나 귀족계층으로
옮겨오면서 장식물은 서화나 도자기, 꽃병 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마음』 속의 하숙집 또한 군인 유족의
집이었다는 것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생님은 도코노마 옆에 아래위로 어긋나게
단 선반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도코바시라’라고
부릅니다. 보통 도코노마와 도코바시라[그림 3]는 함께
짜지어 지어지죠. 원래 일본의 전통 가옥에서 모든
방은 마루바닥으로 만들고, 잠자는 곳에만 다다미를
깔았습니다. 그러다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
들어서면서 소위 서재 겸 방인 ‘쇼인’을 만들면서 방
전체에 다다미를 깔고 도코노마를 갖추게 됩니다. 다다미
여덟 장이 깔리고 도코노마와 도코바시라가 갖추어진
선생님의 방이 일본 전통 가옥의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하숙집에서 가장 좋은 방을
선생님에게 선뜻 내놓은 하숙집 아주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또한 그 방은 손님을 맞이하는
방인에 하숙생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평소애 손님을
맞이할 일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구요.
도코노마가 딸린 방은 보통 그 집의 부를 상징하는
용도로 이용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단순히
아주머니가 자신의 부를 드러내려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머님은
선생님을 보며 자신의 딸을 떠올린 것이죠. 선생님을
괜찮은 소년이라고 판단한 아주머님은 가장 좋은 방을
선뜻 내주면서 선생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하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의 방에
아주머니와 아가씨가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꽃을 갈러
아가씨가 혼자 드나들기도 합니다. 아주머님은 선생님을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아가씨를 접촉시키려는 태도를
반복하는데요. 선생님은 그러한 아주머님의 태도에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되지만, 어쩌서인지 아가씨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염세적인
선생님이 점차 마음을 열게 된 것은 어쩌면 조금은
아주머니의 계획 아래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좀 더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선생님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선생님은
자신이 고이시카와로 이사 오고 난 직후를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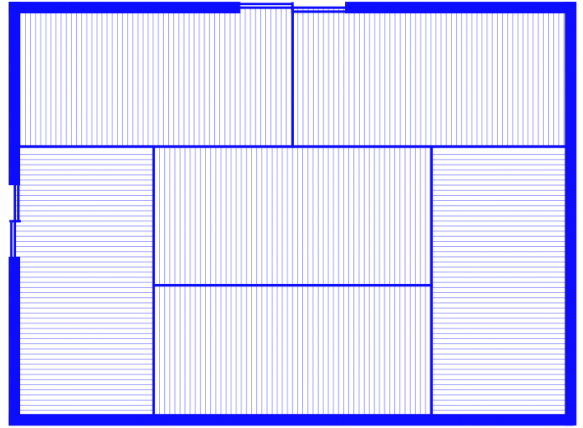
나는 고이시카와로 이사 오고 나서도 당분간
긴장된 기분을 풀 수 없었네. 스스로가 부끄러울
만큼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살폈지. 신기하게도 잘
움직이는 것은 머리와 눈 뿐이고, 그와 반대로 입은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되었네. 나는 집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 고양이처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잠자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 때때로 그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방심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였어.
물건을 훔치지 않는 소매치기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싫어지는 일조차 있었네.

우리가 때때로 슬며시 딴청 피우는 척하며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엿듣는대거나 하는 행동을 아주 잘 묘사한 대목입니다. 여담이지만 ‘물건을 훔치지 않는 소매치기 같은 존재’라는 표현은 너무 기가막히는 것 같네요. 방과 방 사이를 건너지 못한 채, 방 안에 처박혀 집 안의 분위기와 이야기를 엿듣는 모습에서 그의 마음이 아직 하숙집 가족들을 향해 열리지 못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의 건축』에서 알랭 드 보통은 ‘장소가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람도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선생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가씨와 항상 자신에 대해 칭찬해주는 아주머님과 생활하여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점차 예전처럼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가 앉아 있는 곳에 제대로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선생님의 마음이 제자리를 되찾아 가고 있었는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된 선생님은 집 안에서의 이동거리를 확장하게 됩니다. 항상 자기 방 안에서만 처박혀 공부하는 척 남의 이야기를 엿듣던 선생님은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진 후, 건넌방에 가기도 하고 자기의 방에 아주머님과 아가씨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 자신의 방에 아주머님과 아가씨를 끌어들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보통 자신의 방은 정말 솔직한 공간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졌고 취미를 가졌는지 볼 수 있죠. 집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면서도 솔직한 공간인 자신의 방에 아주머님과 아가씨를 초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 대한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더욱 친해지고 싶은 만큼 자신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죠. 그 이후 선생님과



[그림 4] 아가씨의 방

아가씨는 더욱 잦은 왕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좀 더 적극적이었죠.

나를 부르러 오는 사람은 대개 아가씨였어. 아가씨는 틈마루를 직각으로 돌아 내 방 앞으로 오기도 하고 거실을 지나 옆방의 장지문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네. 아가씨는 거기까지 와서 잠깐 멈추고는 반드시 내 이름을 부르며 “공부하세요?” 하고 물었지.

(…중략…)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책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네. 페이지 위에 눈을 두고 아가씨가 부르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지. 기다리고 있다가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어났네. 그리고 건넌방 앞으로 가서 “공부하십니까?”하고 물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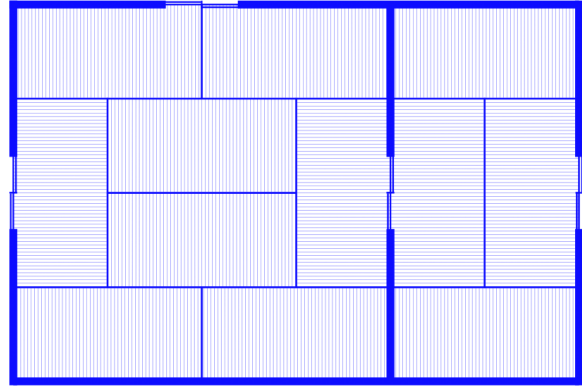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하숙집에 대한 묘사는 점점 구체적이게 됩니다. 점점 아가씨와 선생님이 어떻게 방과 방 사이를 오고 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독자가 궁금해 하는 찰나에 선생님은 아가씨 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가씨 방은 선생님의 방보다 조금 작은 다다미 여섯 장 짜리의 방이고 거실과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가씨의 방[그림 4]은 아주머님이 자주 드나들기도 하면서 거실과 거의 경계가 없는 방이었음을 회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가씨의 방이 선생님의 방에서 어디쯤에 위치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네요. 좀 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 봅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방을 자주 건너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순진한 척 하지만 순진하지 않은 아가씨는 은근슬쩍 선생님의 마음을 떠보기도 하죠. 하지만 낯을 많이 가리고 표현이 어리숙한 선생님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채 매번 같은 자리에 머물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좀 찌질한 남자였어요. 거실이나 아가씨의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대목에서 선생님의 찌질함은 극에 달하죠.

그렇다고 일어나 장지문을 열어 볼 수는 더더욱 없지. 내 신경은 떨린다고보다 커다란 파동을 그리며 나를 괴롭혔네. 나는 손님이 돌아간 후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도 않으면서 질투심만 가득하여, 남자 손님의 이름을 묻는 선생님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 어떤 남자인지를 잘 보여 줍니다. 아가씨와 생활하며 고백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 후에도 수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매번 선생님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죠. 기회마다 항상 자신이 해야 할, 혹은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화제에서 빼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다시 오지 않을 정말 큰 기회가 찾아 오죠. 이번에도 용기가 없던 선생님은 말하지 않게 되고, 결국 아가씨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죠. 아가씨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등을 돌린 채 우울해 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아가씨의 옷장에 자신의 옷이



[그림 5] 다다미 여덟 장의 선생님 방과 너장 K의 방

함께 포개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소 찼찼한 관계의 상황 속에서 하숙집에 또 다른 하숙인이 들어옵니다. 선생님의 친구 K입니다. 선생님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놓인 K가 새출발을 하게 하고자 하숙집에 끌고 들어온 것인데요. 사실 아주머님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아주머님은 선생님과 아가씨가 잘 되길 바랐는데 다른 남자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상황이 복잡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알리 없는 선생님은 K를 데려오고 맙니다. 이때부터 선생님의 인생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이 때의 상황에 대해 자신의 운명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 남자가 내 인생 행로를 가로지르지 않았다면 아마 자네에게 이런 장문의 편지를 써 보낼 필요도 없었을거야.’라고 털어 놓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실 분도 있을 것 같네요.

K의 방[그림 5]은 선생님 방에 대기실처럼 딸린 다다미 너장짜리의 방이었습니. 매우 작은 방이죠. 보통 일본에서 ‘다다미 너장 반’이라고 하면, ‘이보다 더 작고 싸게 구할 수 없는 방’이라는 관용어로도 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시원이나 쪽방 쪽 되는 방이 될 수 있겠네요. 미터로 따지면 대략 2.73m×2.73m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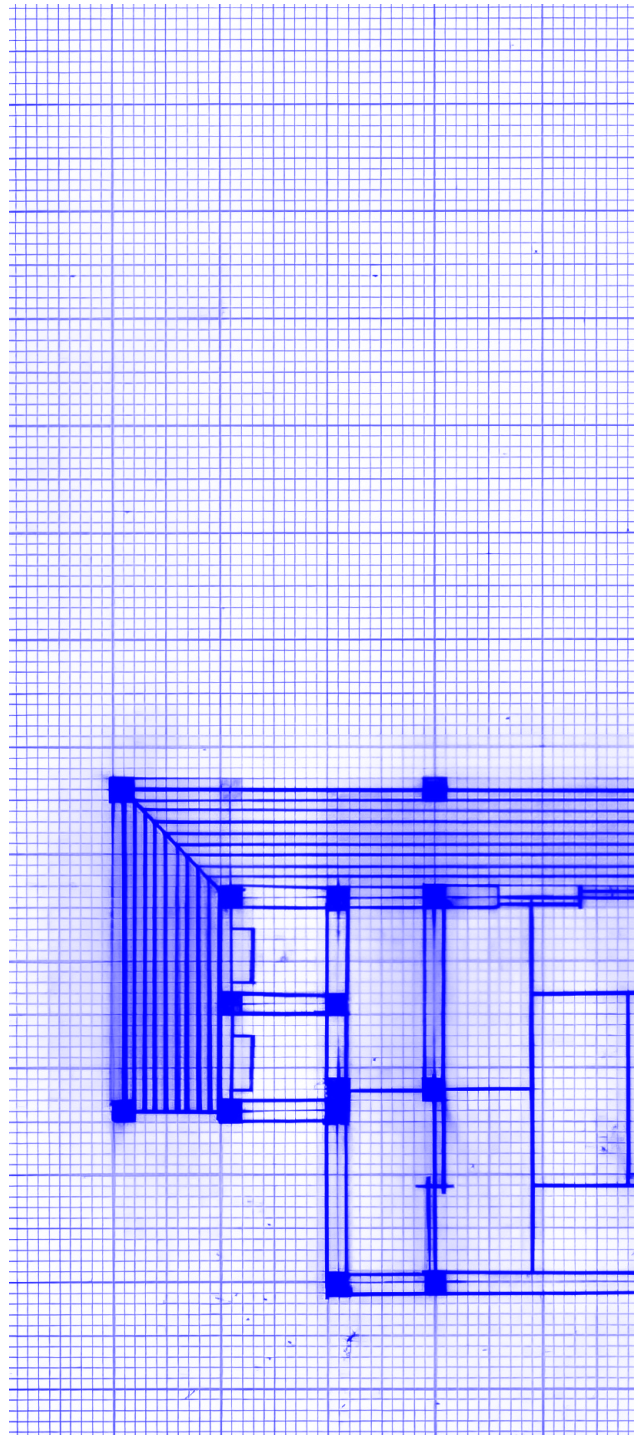
방입니다. 그런데 K의 방은 그러한 다다미 널장 반보다도 더 작은 널장 짜리 방이었습니다. 처음 선생님이 하숙집에 들어올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아주머님이 어떤 방을 내주는지에 따라 아주머님의 심리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숙인을 더 들이고 싶지 않았던 아주머님은 겨우 널장 짜리 방에 K를 맞이한 것이죠.

K가 하숙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된 이후, 선생님은 K가 아주머님, 아가씨와 친해지길 바랐습니다. 자신이 그들과 친해지면서 밝은 성격을 되찾았던 것처럼 K 또한 밝은 모습을 되찾길 바랐던 것이죠. 선생님보다 훨씬 마음의 문이 닫혀 있던 K에게 하숙집 가족들이 다가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이거나 짧은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더욱 더 아주머님, 아가씨와 K를 이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에게 가장 급한 건 자신의 친구가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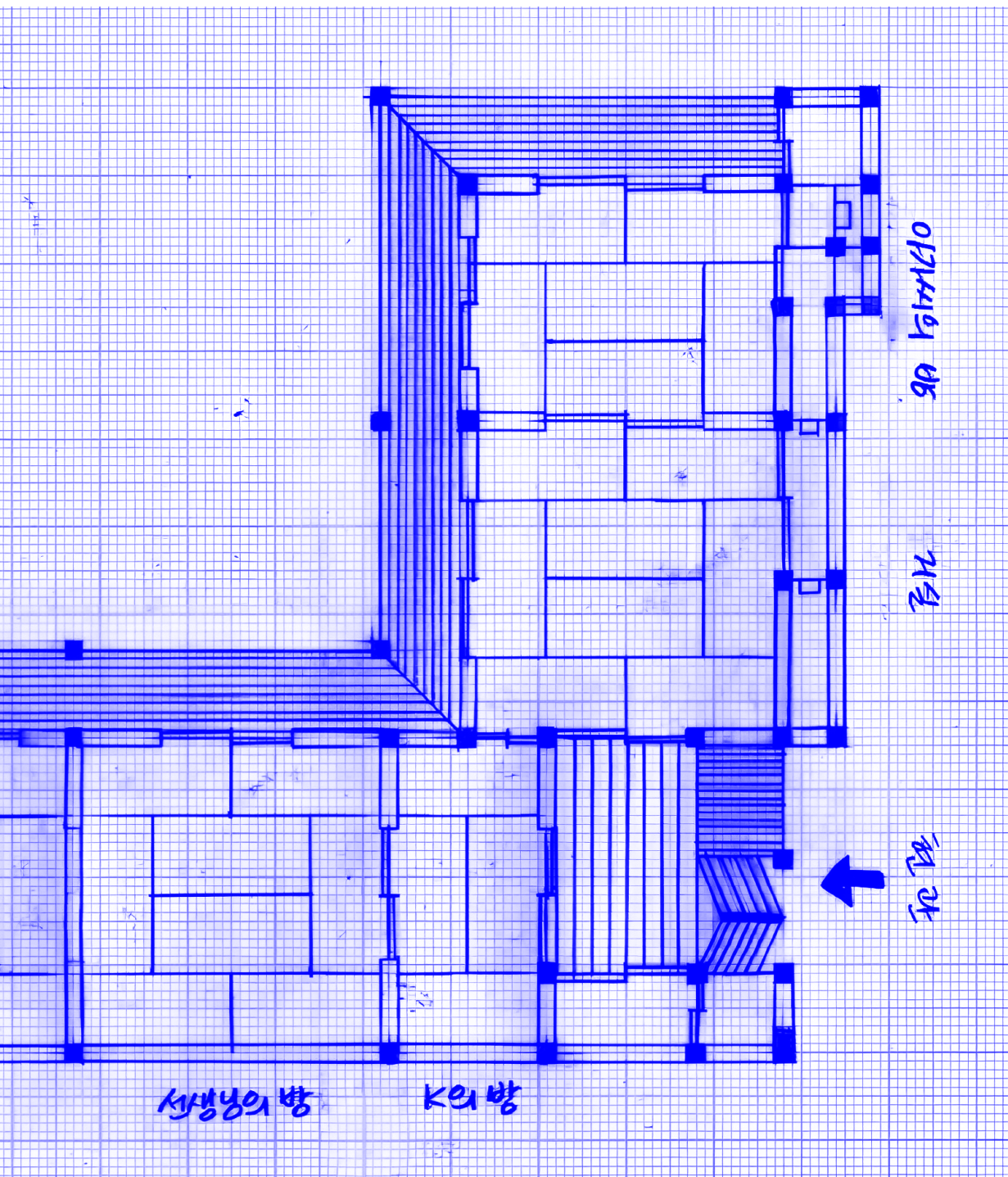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의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늦게 돌아온 선생님이 대문 앞에서 격자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K와 아가씨가 대화하고 있는 목소리를 들은 것이죠. 선생님이 그렇게 바랬듯이 K와 아가씨가 친해진 것인데, 왜 선생님의 마음은 불편한 걸까요?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선생님은 아가씨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자기가 그 둘을 이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일까요? 선생님은 K와 아가씨가 이야기하는 장소의 근원을 벽과 벽 사이를 통해 짐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끔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를 찾고 싶을 때 머릿 속으로 그 장소의 구조를 상상하며 대충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살필 때가 있지 않나요? 선생님은 무척이나 그 소리가 신경쓰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켄에서 선생님의 소리 추적을 통해 우리는 하숙집의 구조[그림 6]를 좀 더 구체화시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켄걸음으로 대문 앞까지 와서 격자문을 드르륵



[그림 6] 하숙집의 구조



열었지. 그와 동시에 나는 아가씨의 목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를 분명히 K의 방에서 들리는 것 같았지. 현관에서 곧장 가면 거실, 아가씨의 방이 이어져 있고 거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K의 방, 내 방이 있는 구조라서 어디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쯤은 오랫동안 신세를 지고 있던 나로서는 금방 알 수 있었어.

게다가 여기서 더욱 선생님의 신경을 곤두서게 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선생님이 들어온 인기척이 들리자, 그 소리를 인지한 K의 방도 순식간에 조용해진 것이죠. 선생님의 마음은 더욱 불편했을 겁니다. 자신의 방을 가기 위해선 반드시 K의 방을 지나쳐야 했던 선생님은 불편하면서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장지문을 열죠. 아니나 다를까 K의 방에는 K와 아가씨 단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아무렇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인기척이 들렸을 때 순식간에 조용해진 걸까요? 선생님은 그것에 더욱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우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마음에서 오는 직감같은 것이 머릿속을 지배할 때가 있죠. 보통 이것을 '촉'이라고 부르죠. 선생님은 아가씨와 K의 소리가 자신이 들어오자 멈춘 것에 대해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사람은 항상 분위기를 파악하며 행동하죠. 이렇게 보통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되면 내 안의 모든 감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총출동하여 주변을 예민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때처럼 아가씨와 K는 안부를 묻지만 선생님에게는 그마저도 이상하고 부자연스럽게 들렸던 겁니다. 선생님은 무언가 어색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들의 행동과 말투를 이렇게 표현하죠. '내 고막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어조로 울렸지.'

선생님은 그때 이후로 종종 아가씨와 K가 단둘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합니다. 어느 날은 K의 방에서 이야기하던 아가씨가 선생님이

들어오자 재빨리 도망치는 뒷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죠. 여러분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더 긴밀하게 친해진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 데다 도망치듯 피하는 아가씨의 행동에서 선생님은 더욱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질투를 느끼게 되죠. 결국, 선생님은 자신이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K에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아가씨를 먼저 만났고, 좋아했으니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급하면서도 초조한 마음이 들었을 테지요. 하지만 결국엔 털어놓지 못하고 맙니다. 선생님의 성격에 털어놓을 기회를 잡기도, 그러한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어색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계속 K와 아가씨가 자신 몰래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마주하면서 선생님은 속으로 언젠간 고백을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다짐뿐이었죠.

어느 날은 하숙집에 선생님과 K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둘은 원래도 말수가 적긴 했지만 그날따라 '두 사람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러한 적막 속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하기 힘든 무언가를 털어놓기 직전 매우 침착하고 조용해지죠. 긴장했을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느라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선생님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K가 그날따라 더 조용했던 건 '마음의 고백'을 하기 위한 폭풍전야와도 같은 침묵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침묵이 지나간 뒤, 선생님은 K가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의 목직한 입에서 아가씨에 대한 그의 애절한 사랑이 흘러나왔을 때의 나를 상상해보게. 나는 그의 마법 지팡이로 단번에 화석이 되거나 다름없었지. 내게서는 입술을 우물거리는 움직임조차 사라져버렸네. 그때의 나는 두려움의 덩어리라고 할까, 아니면 고통의 덩어리라고 할까, 아무튼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는데. 돌이나 쇠붙이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자기 굳어버린 거지. 숨을 쉬는 탄력성마저 잃어버렸을 정도로 굳어진 거야. 그리고 곧바로 아뽀싸, 했네. 선수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지.

선생님은 그 고백을 들으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어서 자세할 이야기’는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회상합니다. 선생님은 그 고백에 대꾸할 힘도, 밥 먹을 입맛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의 방과 방 사이에는 더욱더 두꺼운 벽과 깊은 침묵만이 남게 됩니다. 그들 방 사이의 침묵은 평소와 같은 침묵이면서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침묵이었죠.

선생님은 그 순간이라도 자신도 아가씨를 좋아한다고 K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선생님은 자신이 먼저 용기내지 못한 채 K가 다시 자기 방의 장지문을 열어주길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K는 다시 선생님의 방에 찾아오지 않았고, 침묵만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마음 상태가 되죠. 여러분도 어찌면 아무 일이 없을 땐 친구가 조용해도 별로 신경쓰이지 않다가도 서로 무언가 오해가 생겼다거나 하는 생각이 든 찰나에 상대가 너무 조용하면 괜히 모든 신경이 그 사람을 향해 쏠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도 그랬던 것이죠. 평소에 K가 조용했을 땐 그의 존재를 잊는 게 보통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K가 조용하면 할수록 그의 존재가 마음 속에서 더 무겁게 자리잡고 있었던 거죠.

그날의 하숙집은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도 선생님과 K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일찍 잠자리에 들지만 여전히 옆 방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괜스레 K에게 다시 말을 걸며 고백해볼까 머뭇머뭇하는 선생님의 행동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K에게서 아주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죠. 곧이어 K의 방에서 잠자리를 펴는 소리가 들리곤 후- 남포등을 끄는 소리와 함께 하숙집은 다시 깊고

깜깜한 적막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후 선생님은 K가 자기보다 먼저 아가씨와 아주머님에게 고백을 털어 놓을까 봐 조마조마해 합니다. 하루, 이들이 지날 때마다 아가씨와 아주머님의 표정을 살피며 상황을 짐작하죠. 그러다 어느 날 K가 선생님을 불러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선생님에게 막연하게 묻죠. K가 아가씨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마음이 상해 있던 탓에 뼈뺏하게 대답하죠. K는 고백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당시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만약 K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면 용기 내 고백하라고 조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생님은 어떻게든 K가 고백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자신의 임무처럼 느껴졌던 거죠. K는 평소 자신의 입으로 ‘정진’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선생님은 그것을 K의 약점으로 잡아 그가 끔찍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진은 불교의 수행덕목 중 하나인데 순일하고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히 도를 닦을 것을 권유하는 육 바라밀 중 네 번째 덕목이죠. 이러한 ‘정진’은 K의 첫 번째 신조였습니다. 정진에는 절욕, 금욕이 강조되었고 사랑 또한 그러한 도를 닦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K의 고백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선생님은 “정신적으로 향상심이 없는 자는 바보라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힘주어 말합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자신이 아가씨를 독차지해야겠다는 이기심에 내뱉은 말들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내뱉은 말은 결코 쉽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K가 자신의 제1의 신조와 그것을 깨야 하는 사랑 사이에서의 갈등이었고, 자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었기 때문이었죠.

정말로 찌질했던 선생님은 이제껏 스스로에 대해 고백을 하지 못하다 K의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 그의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이후 선생님은 잠시나마 K에

대한 승리감에 편안한 하루를 보내지만 그것도 잠시 K가 아가씨에게 고백할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죠. 그리고 자신도 이제는 아가씨와 아주머님께 고백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K가 아직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선생님은 아주머님께 “아주머님, 따님을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주머님은 곧바로 좋다고 이야기하죠.

선생님의 태도는 다소 비겁해 보입니다. 용기를 냈다는 것은 어쩌면 선생님이 큰일이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K에게 이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죠. K에게 말할 용기는 또 없었던 겁니다. 비겁하면서도 욕심만 많은 사람이었죠. 결국, 아주머님을 통해 선생님이 아가씨와 결혼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K는 다소 놀라지만 곧이어 침착해하며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의연하면서도 성숙한 듯 보이는 K의 태도에 선생님은 K에 대해 패배감과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난 책략으로는 이겼어도 인간으로서 졌다’는 느낌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네. 나는 그때 K가 필시 경멸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혼자 얼굴을 붉혔지. 하지만 이제 와서 K 앞에 나가 창피를 당하는 것은 내 자존심에도 커다란 고통이었네.

그리곤 하루만 더 있다가 K에게 이야기해보자고 결심한 순간, 그날밤 K는 자신의 방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선생님의 K가 죽은 날 목격한 그의 방의 모습을 아주 생생히 기억하죠.

나는 지금도 그 광경을 떠올리면 오싹해. 늘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고 자는 내가 그날 밤만은 우연히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게 잠자리를 깬 것도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 나는 머리맡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문득 눈을 떴네. 늘 닫혀 있는 K와 내 방의 칸막이 장지문이 일전의 밤과 비슷한 정도로 열려 있더군. 하지만 그때처럼 K의 검은 그림자는

거기에 서 있지 않았네. 나는 암시를 받은 사람처럼 잠자리에서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며 K의 방을 들여다보았지. 남포등이 어둑하게 켜져 있었네. 그리고 잠자리도 깔려 있었지. 하지만 덮은 이불은 뒤집힌 것처럼 아래쪽에 겹쳐 있었네. 그리고 K는 반대쪽을 향해 엎드려 있었지.

(…중략…)

그때 내가 받은 첫 번째 느낌은 K로부터 돌연 사랑 고백을 들었을 때와 거의 같았네. 내 눈은 그의 방 안을 한번 둘러보자마자 마치 유리로 만든 의안처럼 움직이는 능력을 상실했지. 그 자리에 못 박히고 말았네. 그런 상태가 질풍처럼 나를 통과한 뒤 나는 다시 아, 큰일났다, 하고 생각했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검은빛이 내 미래를 관통하고 한순간에 내 앞에 놓인 전 생애를 무섭게 비추었네. 그리고 나는 덜덜 떨기 시작했지.

선생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아무런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채로 자신의 방 안을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평소와 달리 영원히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더디게 지나갔죠. K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주머님께 죄송하다며 용서를 빌죠. 또한, 선생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양심이 ‘네가 죽었다고 말해’라는 목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합니다.

이후 아주머님과 아가씨, 선생님은 이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K의 방을 지나치며 고통스러웠을 테고, 아주머님과 아가씨 또한 함께 지냈던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사를 한다고 해서 괴로운 마음까지도

하숙집에 두고 올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도 두고 올 수 없었던 그 마음은 선생님 곁에 평생 붙어 살면서 선생님을 괴롭힙니다. 콜린 엘러드는 '우리는 기억에 집을 저장할 수 있고, 집을 떠나도 기억을 안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집에서의 좋은 추억은 어른이 된 이후 행복한 삶의 근간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억이 마음 속에 따리를 틀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불안한 감정을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의 하숙집에 대한 기억은 나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괴로운 기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선생님은 때때로 새로운 출발을 해보고자 결심하지만 그 때마다 양심이 선생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

선생님은 숙부에게 속은 이후,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자신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K의 자살을 통해 자신 또한 숙부와 다를 것 없다는 것을 스스로 목격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질리게 된 것이죠. 결국, 선생님은 학생인 '나'에게 유서로 자신의 일생을 고백하며 자살합니다. 선생님은 자기 죄에 대한 용서와 '나'라는 청년에게 자신의 죄책감을 고백함으로써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인생에 대한 충고를 유서를 통해 남긴 것이죠.

지금까지 『마음』이라는 작품을 하숙집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탐구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작품 『마음』은 죽음이라는 소재를 매우 깊이 있게 다룬 작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강의에서 '죽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습니니다. '죽음'이라는 주제 못지않게 이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 또한 흥미롭게 살펴볼 만한 이야기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의 좁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포인트였죠. 이렇듯 『마음』에서 인물들의 심리가 매우 섬세하게 묘사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작가가 '하숙집'이라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방과 방 사이를 두고 인물들은 서로의 소리에 집중하며

행동하죠. 그 방들을 경계로 서로의 행동 패턴을 엿보며 기빠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평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하숙집 안에 넣어 놓고 보여주는 듯합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선생님의 심리가 주를 이루는데, 우리는 선생님의 방에서 그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그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엿듣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도 하죠. 결국, 이 소설에서의 '방'은 먹고, 자고, 공부하는 활동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내면의 소리를 듣는 마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음』이라는 작품은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에게 그 자신의 마음과 만날 수 있게 하는 '방'을 만들어 주는 듯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집으로 돌아가 잠시 핸드폰, 컴퓨터를 끄고 조용한 방에 앉아 잠시나마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